

어린 왕자

The little prince

생텍쥐페리 | 마음



Shim Maum

마음 심

이 그림과 책은 심공 마음을 그려고 썼어요.
감사합니다 >...< *
제 작품들(?) 더니 사랑해주세요-

목차

헌사

1장 (첫 번째 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작가 소개 (짧게)

감사의 말(웁긴이)

헌사

레옹 베르트에게

먼저 이 글을 어린이들이 아닌 어른들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할까 한다. 심심한 사과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 물론 이들 어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들이다. 아 참, 이 발언에 대해서도 부디 사과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 이들 어른들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 심지어 어린이들의 책까지도. 아, 이런 세 번째로 사과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 이들 어른들은 프랑스에만 해도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에겐 아늑함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내 사과들이 충분하든 않하든, 난 이 책을 어른이 된 그들 어린이들에게 바치는 바이다. 모든 어른도 출발은 모두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치만 그들 중간신히 몇몇만 그걸 기억해 낼 뿐이다. 그래 내 헌사(바치는 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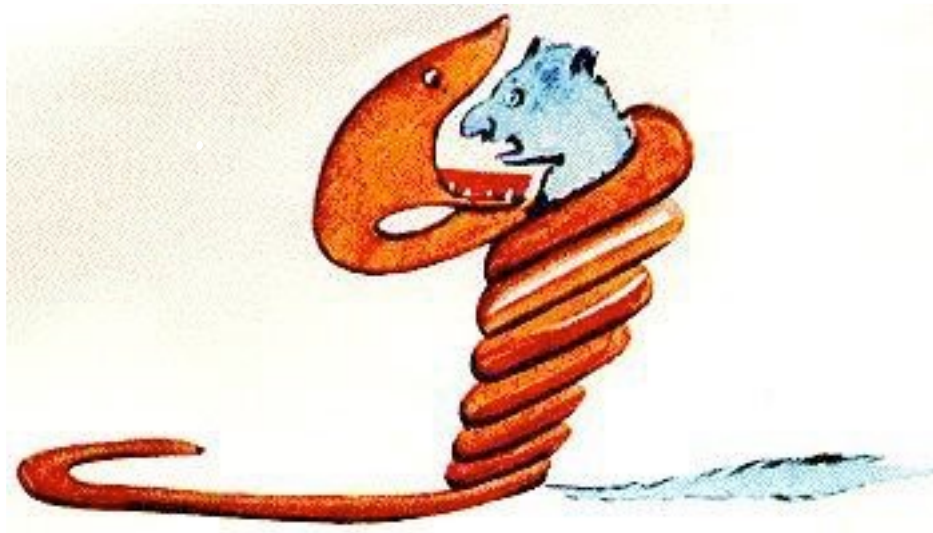
어린이였을 때의

레옹 베르트에게

1 장 (첫 번째 장)

내가 한 번은 여섯 살 때 원시림을 다룬 『생명체 이야기』라는 책에서 굉장한 그림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야수를 한 입에 삼킨 보아 뱀에 관한 얘기였어.

여기 이 그림이 그것이야.



황갈색 보아 뱀

책엔 이렇게 쓰여 있더라, 보아 뱀은 씹지도 않고 산 채로 먹이를 삼킨다. 그런 다음엔 소화를 위해 여섯 달 동안 꿈쩍도 않고 잠만 잔다,라고.

난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정글의 모험에 관한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어.

그래서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지.

그게 바로 이거야.



솜브레로(챙이 넓은 멕시코 모자)

난 이 걸작을 어른들께 보여드리며 내 그림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았어.

그들은 말했지.

뭐가 그리 무섭다는 거니?

내 그림은 그냥 모자가 아닌데 말이야. 아니라고, 꼬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 뱀이라고.

그래서 보아 뱀 안에도 그려줬더니 그제야 어른들은 이해를 하지 뭐야.

항상 이런 식이었어, 어른들은 설명이 필요해.

내 두 번째 그림을 봐봐.



보아 뱀

여튼 어른들은 내게 충고하길 엉뚱한 보아 뱀이나 그리지 말고 지리, 역사, 샘(계산)이나 문법에 취미를 들어봐라.

그리하여 난 여섯 날 때 이미 화가의 꿈을 접어야 했지.

내 첫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영 쓸모 없게 되자 낙담하고 말았거든.

나의 이런 일들에 대해 어른들은 물론 관심도 없었고 말이야.

설명을 해대는 아인 피곤하다는 투(말투)였었지.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된 거야.

그게 바로 하늘을 나는 비행사였지.

난 정말 전 세계를 날아다녔어. 그리 되니 지리학도 좀 도움이 되데. 난 중국이나 ‘애리조나’(미국의 주 이름)도 한눈에 첫 보면 알아보게 되었지.

물론 밤에 길을 잃을 때면 지리학에 대한 얹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말이야.

살아오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 대개 심각한 어른들이었지.

물론 난 그들 사이에서 살아야 했으니깐.

그럼 난 그들에게도 내 그림을 보여 주었지. 내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말이야.

명석해 보이는 어른들을 만날 때면 난 아끼며 보관해 오던 내 소중한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었어. 그들이 정말로 이해할까 알고 싶었거든.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어.

모자군요.

그럼 난 보아 뱀 애긴 꺼내지도 않았지, 물론 숲 애기나 별 애기도 하지 않았고 말이야.

난 그들에게 내 자신을 맞추며(낮추며), 기껏 '브리지'(카드 게임의 일종), 골프, 정치 그리고 술에 관한 얘기만 잔뜩 할 뿐이었지.

아~ 그럼 어른들은 죄다 날 합리적인 사람이라 무척 기뻐하며 칭찬들 하지 뭐야.

2 장

그래 난 혼자 살게 되었어, 애길 나눌 누군가도 없이 말이야,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새벽을 맞을 때까지.

비행기 엔진에 뭔가 고장이 있었나봐.

정비공도 일행도 없었기에 처음엔 고쳐보려 혼자 애도 써보았는데.

근데 사실 마실 물도 1주일 분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이걸 완전 죽고 사는 문제까지 갔지.

거주지(도시)로부터 천 킬로미터는 멀리 떨어진 모래사막에서 첫날 밤을 맞았어.

마치 바다 한 가운데 외딴 뗏목 위에 홀로 내던져진 그런 기분이더라.

근데 새벽에 뭔가 살짝 익살맞은 목소리가 나를 깨우는 거 같아 깜짝 놀랐지 뭐야.

이렇게 말하더라.

"양 한 마리 그려주세요!"

"어 뭐라고!"

"양 그려 달라고요..."

순간 번개에 맞은 듯 난 벌떡 일어나고 말았지.

난 눈을 비비며 보고 또 보고 말았지.

그건 정말이지 괴상하게 생긴 어린 아이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겠어.

난 후에 그 애의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단다, 그게 바로 이거야.



어린 왕자

물론 내 그림은 실제 모습보단 못해.

그게 내 실수는 아니란다.

알다시피 난 여섯 살 때 이미 어른들에 의해 화가의 꿈을 접었잖니.

그때까지 내가 그려본거라곤 달힌 보아 뱀과 열린 보아 뱀이 다였으니까.

여튼 난 이 ‘환영’(어린 왕자의 휘황찬란한 모습)을 정말 눈이 휘둥그레져선 보았어.

그 순간만큼은 내가 주거지(도시)로부터 일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는 사실도 잊고 말았

지.

이 작은 친구는 나처럼 길을 잃은 것도, 그렇다고 피곤에 겨운 것도, 그렇다고 목이 마르다거나, 배가 고프거나 두려운 것도 아니었어, 그런 기색일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지.

그애의 그 어디에도 사막 한 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으니 말이야, 그 것도 자그마치 천 킬로미터 떨어진 사막에서 보게 될 그런 옷차림의 아이가 전혀 아니었던 거야.

난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결국 말을 거는데 성공하고 말았지.

난 이렇게 말했어.

"여기서 뭐하는 거니?"

그랬더니 그 애는 좀 더 진심어린 암전한 말투로 되풀이해 말하더라.

"양 한 마리만 그려 달라고요..."

신비로움이 너무도 강렬할 땐 거부치 못하는 법이지.

주거지로부터 천 킬로미터 떨어져서 사경을 헤매는 내가 그 순간만큼은 전혀 거부감없이 호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단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지리와 역사 그리고 셈(계산)과 문법만 배워왔단 걸 금새 기억해내곤, 그 애에게 약간 언짢아하며,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단다,라고 말했지.

그 애가 말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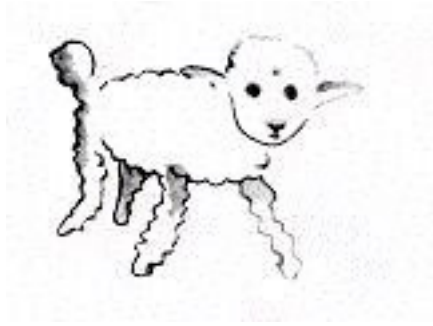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오.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난 한 번도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네.

순간 내가 그릴 수 있는 두 가지 그림들 중 하나가 생각났지. 그건 달힌 보아 뱀이었어.

이후 그 애의 말을 듣고 난 깜짝 놀라고 말았지.

"아니 ! 아니 ! 보아 뱀에 갇힌 코끼리가 아니라... 아이 참 보아 뱀은 아주 위험하잖아오. 코끼린 또 너무 성가시고요. 제가 사는 곳은 작아서, 전(저는) 양이 필요하다고요. 양 그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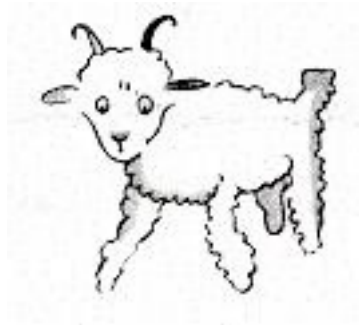


양1 (첫 번째로 그린 양 그림)

그래서 그렸단다.

그 애는 이번엔 좀 주의 깊게 살피더군.

"아니요! 애는 아프잖아요. 다른 애로 그려주세요."



양2 (두 번째로 그린 양 그림)

또 그렸다네.

내 친구가 조용히 미소짓더군, 남의 결점에 너그러운 그런 미소 있지 않는가.

"아이 참... 앤 양이 아니잖아요, 앤 숫양이라고요, 뿔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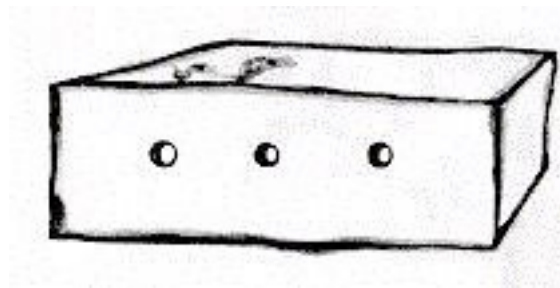
양3 (세 번째로 그 린 양 그림)

그래서 난 이번에도 조용히 그림을 그렸지.

그치만 앞서처럼 그에게 퇴짜를 당하고 말았지.

"앤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전 오래 살 양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인내력에 고갈을 느낀 난 엔진의 장비를 떼어내며 쓱쓱 이 그림을 날린 스케치로 그려주고 말았지.



양4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 린 양 그림)

이것을 건네며 내가 말했지.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들은 이 안에 있단다."

근데 내 어린 감식가의 눈이 환히 빛나지 않겠어, 난 무척 놀랐단다.

"정확히 제가 바라던 그림이에요! 애들은 풀을 많이 뜯어먹나요?"

"왜 그걸 묻는 거니?"

"제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괜찮을 거다. 아주 작은 양이니까."

그림에 고개를 푹 떨구며 그에게 말했어.

"그렇게 작지도 않구만. 그 애들이 자고 있어요..."

그렇게 난 어린 왕자와 알게 되었단다.

3 장



벼랑

그 애는 어디서 왔을까.

그걸 알아차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

내가 묻는 말을 어린 왕자는 영 들으려고 하지 않았거든.

그치만 난 정말이지 우연찮게도 이런 말을 듣게 된 거야, 그건 무언가가 다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었지.

그 애는 내 비행기를 처음 봤는데, 아 참 내 비행기를 여기서 굳이 그리진 않겠네, 나름 내가 그리기엔 좀 복잡하니까 말이야, 여튼 이리 말 하더군.

"이건 어떤 물건인가요?"

"물건이 아니란다. 나는 거지. 비행기란다. 내 비행기지."

난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뭇 자랑스럽게 말했지.

그 애도 감탄하더라.

"와!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응."라며 내가 겸손하게 말해주었지.

"아! 넘 웃겨요..."

이 부분에서 어린 왕자가 어찌나 웃음을 터뜨리는지 난 무척 안달이 나고 말았단다.

이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내 심각한 인식이 지금 내 거침없는 불행에 자그마한 동정심을 기울여 주고 있다 생각하던 차였거든.

그런데 그 애가 이리 덧붙이지 않겠니.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어떤 별인가요?"

뭔가 그 애의 존재에 대한 암시나 비밀 같은 게 엿보이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내가 재차 물었지.

"그럼 넌 별에서 왔다는 거니?"

그치만 그 애 내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부드럽게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살며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

"이걸 타고 그리 멀리서 왔을 법 하진 않네요."

그러더니 자신만의 몽상에 빠져들더군.

그후 내가 좀 전에 그려준 그 양 그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마치 보물처다 보듯 빠져들지 않겠어.

"다른 별"이라니 정말 이 말에 내가 반신반의가 되어 좀 더 물어볼 요량으로 말을 더 건넸지. 도통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

"넌 어디서 왔니, 아가야? 집은 어느 쪽이니? 내 양들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었던 거니?"

생각에 잠겼던 그 애가 말했어.

"밤에 지낼 집으로 삼기엔 이 상자가 딱일 거 같아요."

"그야 물론이지. 네가 암전하게만 굴면야, 난 낮에도 그 애들을 매어 놓을 수 있는 끈도 그려주마. 덤으로 말뚝도 하나 그려주고 말이다."

그 말이 어린 왕자에겐 적잖이 충격이었나봐.

"붙들어 놓는다고요? 너무 우스운 생각 아니신가요!"

"그지만 묶어 놓지 않음 어디론가 달아나버리게 되고, 그럼 그 애를 잃게 되지 않니."

이 부분에서 내 친구가 또 다시 웃음보를 터뜨렸지.

"가긴 어딜 간단 말이에요!"

"어디든 말이다. 곧장 앞으로 갈 수도 있잖니..."

그러자 어린 왕자가 사뭇 진지해져선 한 마디 했지.

"그건 안 중요해요, 제 집은, 아주 작단 말이에요!"

살짝 구슬퍼지는가 싶던 그 앤 아마 이리 덧붙였던 거 같다.

"곧장 가도 얼마 못 간다고요..."

4 장

곧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건 어린 왕자의 별이 자그마한 집보다 조금밖에 크지 않다는 거야!

사실 놀랄 일도 아니었어.

지구, 목성, 화성, 금성과 같이 내가 익히 알던 큰 별들 외에도 만원경을 통해 보이지 않는 수 많은 다른 작은 별들의 존재를 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보통 그런 작은 별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천문학자들은 숫자를 붙이곤 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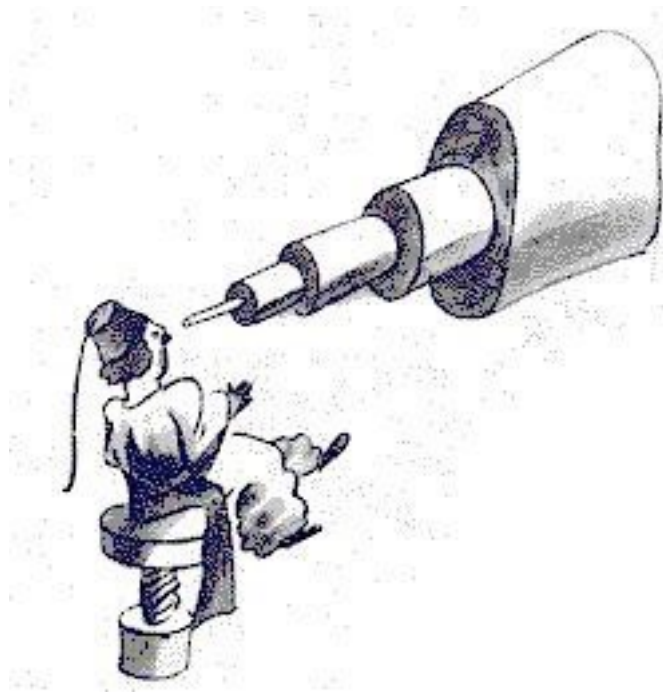
"소행성 325"



어린 왕자의 별, 소행성 B 612

어린 왕자가 온 별이 소행성 B 612라고 내가 믿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어.

이 소행성은 1909년도에 터키의 어느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본 적이 있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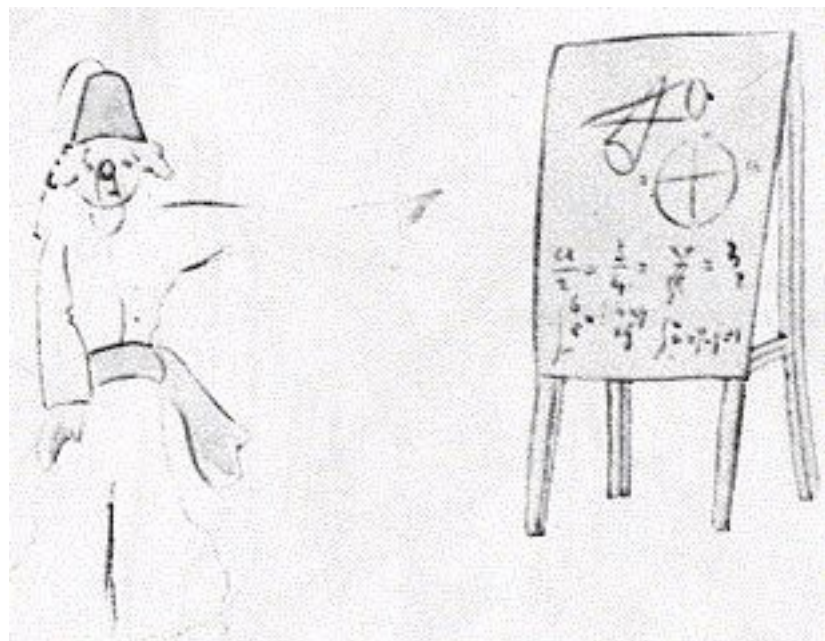


만원경

그는 자신의 발견에 대해 국제 천문학회에서 어마어마한 시연을 해보였지.

그치만 그가 입고 간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어.

어른들은 늘 그런 식이니까.



터키 옷을 착용한, 터키 천문학자

운이 좋게도, 소행성 B 612가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터키의 독재자가 자신의 국민들에게 모두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는데, 그가 “모두 유럽식으로 옷을 입지 않음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던 거지. 그래서 아주 기품 있는 옷을 입고서 아까 그 천문학자가 1920년에 다시 자신의 발견에 대해 국제 천문학회에서 시연을 하게 된 거지.

그러자 모두들 그의 말을 믿게 된 거야.



유럽식 양복을 착용한, 아까 그 터키 천문학자

내가 소행성 B 612를 설명하며 굳이 숫자를 제시한 것은 모두 이들 어른들 때문이야.

어른들은 숫자를 너무도 좋아해.

내 새 친구를 소개할 때도 어른들은 이렇게 묻지 않아 절대로 말이야.

"그 애의 목소리는 어떠니? 무슨 놀이를 좋아하니? 나비 수집을 좋아하니?"

대신 어른들은 이렇게 묻지.

"그 애 몇 살이니? 형제는 몇이니? 몸무게는 얼마니? 그 애 아빠 수입은 얼마라고?"

그리곤 어른들은 내 친구에 대해 다 안다고 생각해.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께 이리 말한다면,

"그 애 집 창문엔 '제라늄'(풀 이름) 화분이 있고요, 지붕엔 비둘기들이 있고요, 분홍색 벽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

그럼 어른들은 그게 뭔 말인지 따져보질 않지.

그럼 우린 다시 이렇게 말해야 돼.

"10만 프랑(프랑스 돈) 짜리 집을 보고 왔어요."

그럼 어른들은 외치지.

"정말 멋진 친구를 사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그 애가 기뻐했던 것과, 웃었다는 것과 양 한 마리를 그려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양을 바꿨다는건 그 애가 존재한 명백한 증거니까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머쓱해보이며 널 애 취급하려 들거야!

그치만 네가 어른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애가 온 별은 소행성 B 612 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수궁을 하고 네게 질문공세를 그만 두는 거지.

맞아 그들은 숫자를 좋아해.

그게 우리가 그들을 탓할 바는 아니지. 이 점이 어린이들이 어른을 너그러이 봐주어야 되는 부분이야.

하지만, 물론, 삶을 이해한 이들에게도 숫자가 재미난 요소이긴해!

그래서 요정 이야기 같은 내 얘기의 시작도 이렇게 해보려고해.

"옛날 옛적에 자기 자신보다 조금밖에 크지 않은 어느 별에서 살고 있던 어린 왕자가 하루는 친구가 필요했데요..."

왜냐면 진실된 이에겐 친구가 소중한 그 이상이니까.

내 책이 가볍게 읽히길 바라지 않기에, 이 기억들을 되새기는 게 살짝 미안해지긴해.

내 친구가, 내가 그려준 양을 데리고 떠난 게 거의 6년 전 일이었으니까.

만약 내가 여기서 그 애를 묘사하려 든다면, 그럼 안 되지만 기억이 가물해진 것도 사실이야.

친구가 없는 사람은 없어.

특히나 숫자만 좋아하는 어른을 이해하게 된 지금의 나에겐 더.

그게 내가 물감과 연필 한 박스를 산 이유이기도 해.

어렵사리 내 나이에 다시 그림에 손을 대어 본거지, 여섯 살 때 닫힌 보아 뱀과 열린 보아 뱀을 그려본 게 다였는 데도 말이야.

물론 내가 그린 초상화가 어린 왕자를 닮긴 했어. 하지만 썩 성공적인 그림은 아니었지.

한 부분을 그리고 나면, 다른 부분이 맞지 않았으니까.

그걸 해결하고 나면 이번엔 몸집이 안 맞는 다거나 그런 실수들 알잖아.

이 그림에선 어린 왕자가 너무 크거나 그런 경우 말이야. 또는 너무 작게 그렸던가. 또는 옷 색깔을 칠하며 너무 어설피게 색을 칠했다거나. 이리 저리 만지작거리다 어영부영 세부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했던 걸 망치고 마는 식이지.

그치만 큰 실수는 아냐.

친구에겐 해명이 필요 없으니까.

내가 그 애를 못 그렸던 잘 그렸던 그 애는 내가 그 애 좋아한다는 걸 알 테니 말이야.

그치만 불행히도 지금의 난 나무 상자에서 양들을 보는 방법을 몰라.

어른이 다 되었거든.

좀 더 나이 먹은 어른이, 말이야.

5 장

매일 난 그 별과 떠나온 이유, 여행에 대해 알게 돼.

그러다 보다 좀 더 귀 기울이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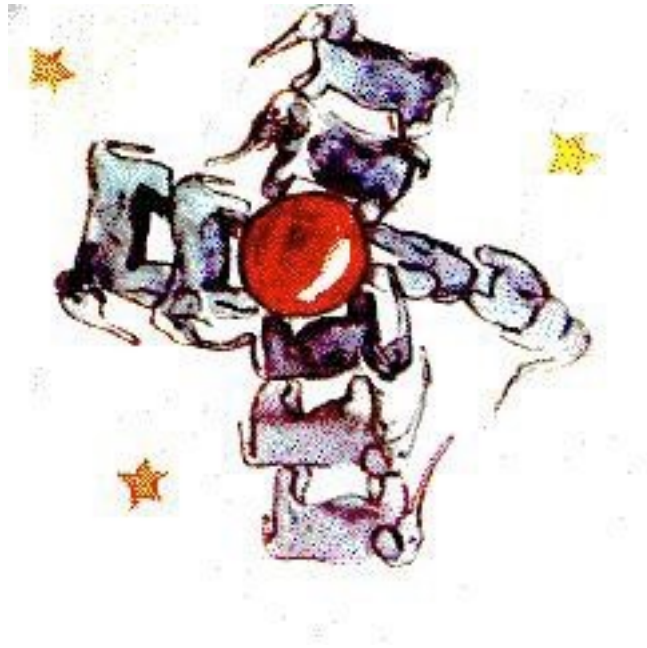
셋째 날 난 바오밥나무에 대해 알게 된 거야.

물론 이건 양 덕분이야, 어린 왕자가 순간 진지해져선 내게 이렇게 물었거든.

"진짜예요, 양이 작은 나무를 먹어요?"

"그렇단다, 진짜란다."

"아! 행복해!"



코끼리들

양이 작은 나무들을 먹는다는 게 뭐가 그리 행복하다는 건지 나로선 도통 알 수가 없었어.

그치만 어린 왕자가 이렇게 또 묻더군.

"그럼 바오밥나무도 먹나요?"

난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나무는 작은 나무로 볼 수 없잖니,라고 말해주었어.

바오밥나무는 교회처럼 큰 나무라는 거지.

코끼리를 떼거지로 데려와 옮기더라도 바오밥나무 하나를 쉬이 옮기지 못할 거란 얘기도 덧붙여주었지.

코끼리 떼거지란 말에 어린 왕자가 웃었어.

"코끼리들을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할 거예요..."

곧 어린 왕자가 진지하게 덧붙였어.

"바오밥나무도, 다 자라기 전엔, 아주 작은 크기에서 시작했을 테니까요."

"그래! 그럼 넌 작은 바보밥나무를 먹게 하려고 양들을 데려가려는 거구나?"

그 애가 답하더군.

"네! 들어봐요!"

그건 알기 쉬우면서도,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무척 애를 쓰게 만들었어.

정말, 어린 왕자의 별에선,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데. 그러니까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도 있다는 거지. 하지만 씨앗들은 눈엔 안 보인데. 땅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깨어날 때가 되지만 기다린다는 거지. 그러다 기쁘게도 태양을 향해 그 수줍은 새 싹을 내민다는군. 무(먹는 무)나 장미 가지인 경우 자긴 그냥 자라게 뒤편 되는데. 그치만 나쁜 풀일 경우엔 발견하는 즉시 뽑아버려야 한데. 현재 어린 왕자의 별엔 나쁜 씨앗들이 많데... 바오밥나무의 씨앗들 말이야. 별의 땅 속에 잔뜩 있다는 거야. 바오밥나무가 생기고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더는 뽑을 수도 없단 말도 해주었어. 그럼 그 별 전체가 그것이 파묻혀서 땅 속까지 오염되고 마는 거지. 만약 그 별이 작은 별이라면 너무 크진 바오밥나무로 인해 한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만데.

"그건 습관의 문제예요."

라며 어린 왕자가 후에 말하더군.

"아침에 세수를 하고 별을 다듬어주는 거와 같은 세심함이 필요해요. 아주 어릴 때는 둘이 무척 닮았어요, 그치만 바오밥나무가 장미와 구분되는 순간부턴 정기적으로 뽑아 줘야해요. 아주 귀찮긴 하지만 무척 간단한 일이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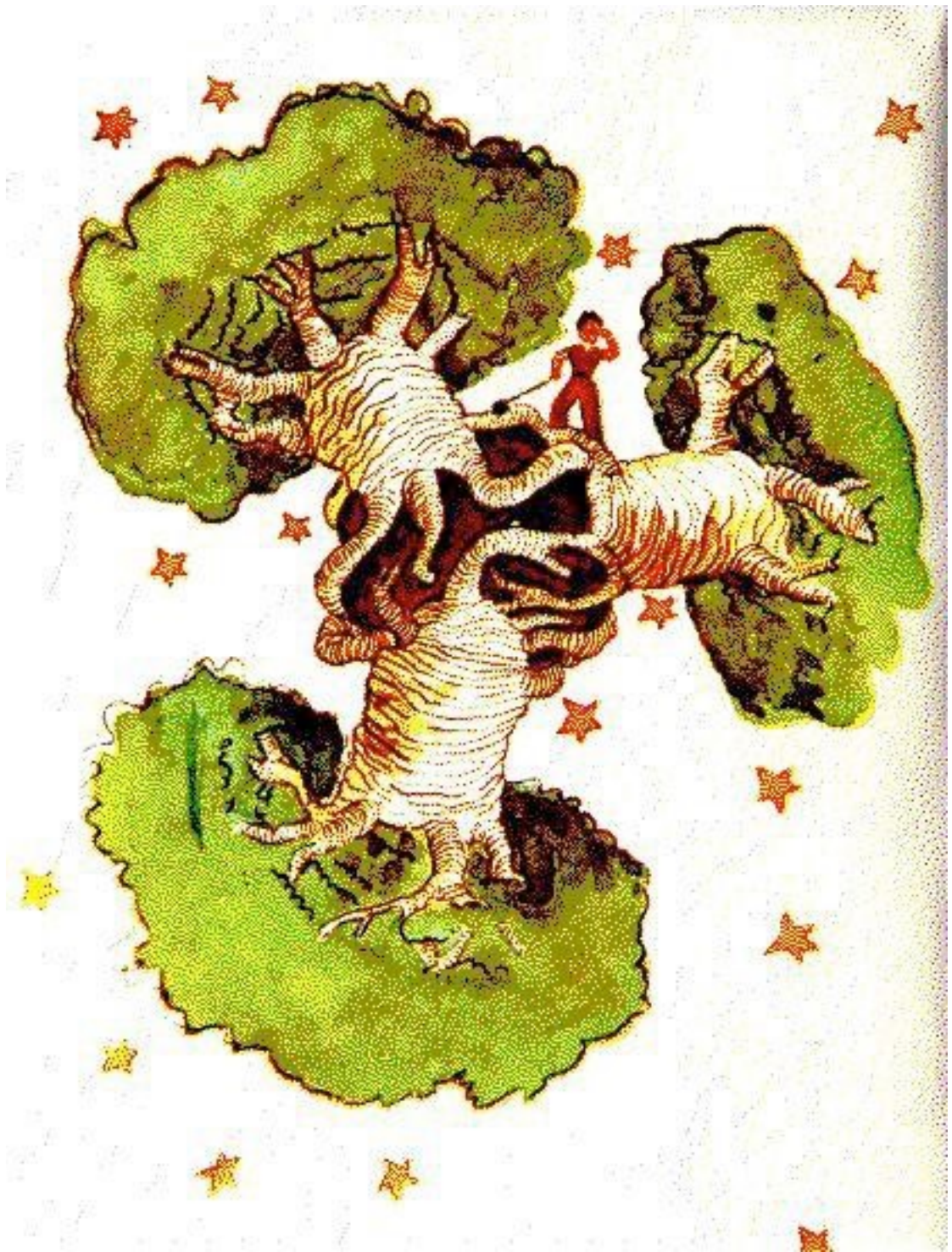
별 몸단장

언젠가 그 애는 내게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그려달라더군, 지구별 어린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말이야.

"그 애들이 언젠가 여행을 떠날 때,"

라며 어린 왕자가 말하더군.

"도움이 될 거예요. 뭔가를 미루는 습관은 안 좋거든요. 특히나 바오밥나무 같은 경우는 대참사를 일으키죠. 어느 게으른뱅이가 별에 살았는데. 작은 나무 세 개를 방치했다가 그만..."



바오밥나무들

그래서, 어린 왕자의 간절함 덕분에, 난 그 별을 그릴 수 있었단다.

그렇다고 여기서 도덕주의자인 체하고 싶진 않지만, 그치만 바오밥나무의 교훈이 워낙에 작지 않기에, 또 누구든 소행성을 여행하며 그 위험에 마주칠 수 있는 법이니까, 그게 나에게만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꼭 말해주고 싶어.

"어린 아이들이여! 바오밥나무를 조심하라! 내가 이렇듯 오랜 시간을 들여 그림을 그린 이 유는, 아무 것도 모르던 나 자신처럼 오랜 시간 위험에 빠져 있는 친구들에게 경고를 보내주기 위함이다. 내가 주고 싶은 교훈은 이거 하나면 충분해. 그럼 여러분은 또 궁금해지겠지. 이 책엔 왜 바오밥나무 그림만큼 품 나는 다른 그림이 없나고? 답은 무척 간단해. 사실 다른 그림들도 그려보려 무진 애 써보았지만, 내가 이 바오밥나무를 그릴 때에 가장 경각심이 들었기 때문이야."



구별이 잘 안가는, '어린 바보밥나무'들과 '어린 장미'들

6 장

어린 왕자, 난 이제 알겠어, 조금씩, 네 어리고 쓸쓸하던 삶을.

넌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있곤 했다지.

4일째 아침 네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난 새로운 걸 알게 되었지.

"전 해질녘이 좋아요. 해지는 거 보러가요..."

"좀 더 기다려야 할 텐데..."

"기다린다니요?"

"해가 질 때까지 말이다."

처음엔 너도 무척 낯선 표정이더군.

그런 다음 혼자 웃더군.

그러더니 내게 말했지.

"집인줄 알았어요!"

정말. 미국 정오 때는 말이야, 모두들 알다시피, (미국 정오 때는) 프랑스에선 해가 지지. 1분 만에 프랑스로 날아갈 수 있다면 해지는 걸 볼 수 있어.

불행히도 프랑스가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못갈 뿐이지.

그치만 너의 별에선 몇 발자국만 의자를 당겨앉으면 되겠더구나.

그럼 넌 마음껏 여명을 바라볼 수 있다지...

"한 번은 해가 지는 걸 마흔 네 번이나 본 적이 있는 걸요!"

잠시 네가 덧붙이더구나.

"왜... 해질 녘이 좋아질 정도로 슬플 때가 있잖아요..."

"마흔 네 번이나 볼 정도로 슬펐다는 거니?"

그치만 어린 왕자는 아무런 말이 없더구나.

7 장

다섯 째 날, 항상 양 덕분에, 어린 왕자의 비밀을 내가 하나 더 알게 되었지.

길게 생각해보더니 불쑥 약간 통명스런 말투로 서론 빼고 다짜고짜 묻더군.

"작은 나무를 먹는다면, 그럼 양들이 꽃들도 먹나요?"

"그야 마주치면 먹겠지."

"심지어 꽃에 가시가 있어도요?"

"그래, 꽃에 가시가 있어도 말이다."

"그럼 가시는 뭐하려고 있는 건데요?"

난 알지 못했지.

지금 엔진에 꼭 낀 볼트를 푸느라 여념이 없었거든.

비행기 고장이 애초 생각보다 심각했던 지라 점점 무게감으로 다가왔고 무엇보다 목의 갈증은 더해가는데 마실 물도 다 떨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럼 가시는 뭐하러 있냐고요?"

어린 왕자는 내게 한 번 묻고 나면 포기하는 법이 없었어.

그치만 난 지금 볼트를 푸느라 그런 게 귀에 와 닿지도 않았지.

"가시아 쓸모없지. 그건 꽃들이 짓궂어서니까!"

"아!"

잠간의 침묵 후 그 애가 일종의 적의까지 담아 내게 말하더구나.

"못 믿겠어요! 꽃들은 약해요. 순수하다고요. 그런 자신을 지킬 게, 그 애들이 생각하기에 무서운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난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내 일에만 파묻혀 있고 싶었을 뿐이야.

"이 볼트가 여간 단단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망치로 때려서라도 풀어야겠어."

그때 어린 왕자가 또 나를 방해하더구나.

"아저씨도 꽃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란다! 그냥 대답한 거야. 난 지금 바쁘잖니!"

그 앤 어리벙벙한 표정을 지었어.

"바쁘다고요!"

손에 망치를 들고서 내 손가락에 묻어 반짝이는 시꺼먼 기름들을 보면서, 더구나 뭔가 엄청 못생긴 물체에 몸을 숙이며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 애가 말하더군.

"어른들처럼 말하시는군요!"

이 부분에서 나도 살짝 놀랐단다.

그치만 그 앤 무자비하게 이렇게까지 덧붙이더구나.

"제 말을 혼동하고 계세요... 뒤죽박죽이라고요!"

그 앤 정말 화가 나 있었어.

그 애의 머릿결이 바람에 나부끼는 게 보였을 정도니까.

"빨간 신사가 살던 별을 알아요. 그는 절대 꽃 향기를 맡은 적이 없어요. 결코 별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한 적도 없었고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았죠. 매일 같이 아저씨처럼 말할 뿐이었는데요. '난 바쁜 사람이다! 정말 바빠!' 저는 그를 자만으로 부풀게 만들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라고요!"

"뭐?"

"버섯이요!"

어린 왕자는 분노로 창백해져 있었어.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양들은 꽃들을 먹어 왔고요.

그런데 꽃들이 가시를 왜 만드는지 중요치 않다고요? 양들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치 않다고요? 이건 큰 시뻐건 신사가 하나 더 느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고요. 만약 제가 세상에 단 하나 뿐인 꽃을 안다면, 제 별에만 딱 하나 있는 그 꽃이요, 그럼 그걸 작은 양이 하루 아침에 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치 않다고요!"



세상에서 유일한 꽃

얼굴까지 붉히며 그 애가 말을 이어갔어.

"수백 수 만의 별들 중에서도 딱 하나 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는 이는 별들을 보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애가 혼자 말했어.

"제 꽃도 그 어딘가에 있... 하지만 만약 양이 그 꽃을 먹는다면, 그럼 그 애에겐 모든 별들이 사라지는 것과 같을 거고! 그런데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아인 더는 말하지 않았지.

순간 그 애가 눈물을 왈칵 쏟았어.

깊은 밤이었지.

이 부분에서 난 도구를 놓았단다.

내 기분은 지금 망치와 볼트와 목마름과 죽음의 두려움 탓에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던 거야.

별들, 유성, 나, 그리고 지구와 이토록 어린 왕자, 위로해야 한다! 난 이 애를 지금 안아 주어야
한다, 그 뿐이었어.

그렇게 그 애를 토닥여주었지 이렇게 말해주면서.

"네가 사랑하는 꽃은 안전하단다... 네 양들에게 입마개를 그려 주마... 네 꽃들에게 갑옷도 그려
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어.

그저 내가 서툰단 생각이 들 뿐이었지.

손을 뻗어 닿을 곳을 모르는 가운데...

눈물에 의해 정화되는 이 신비로움이란!

8 장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알게 되었어.

어린 왕자의 별엔 단순한 꽃들만 늘 있었데.

꽃잎이 하나 뿐인, 꽃방이 없는 꽃들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지내고 있었데.

꽃들은 아침이면 풀 속에서 고개를 내밀었고 저녁이면 지었지.

하지만 어느 날 어디에서 왔는지 이름 모를 씨앗 하나가 싹을 텃데.

어린 왕자는 그 잔가지가 다른 꽃들과 닮지 않은 걸 예의 주시하며 지켜보았지.

황여 바오밥나무 일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그치만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이 될 준비에 마쳤데.

꽃이 피려는 걸 지켜보던 어린 왕자는 뭔가 경이로움이 일어날 거란 걸 느꼈데.

그치만 아름다움을 ‘채 마쳐’(마져 다) 준비하지 못한 꽃은 마냥 푸른 꽃방 속에서 피난처를 구할 뿐이었데.

그러면서도 꽃은 세심하게 자신의 색깔을 선택해나갔지.

천천히 옷을 입더니 꽃잎을 하나씩 형성해나갔지.

꽃은 흔한 양귀비마냥은 태어나지 않으려는 듯 보였어.

아름다움이란 찬란한 광채 속에서 홀로 태어나고 싶은 듯 보였데.

그래 그랬데!

그 꽃은 아주 요염한 꽃이었던 거야!

신비로운 옷을 걸친 채 그렇게 며칠이 또 지났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에, 그 꽃은 모습을 드러냈네.



꽃과 마주함

아주 까다롭게 이 일을 다 마친 그 꽃은 한가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막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옷차림이 좀 흠뻑러졌조..."

어린 왕자로선 감탄을 금할 수 없었네.

"정말 아름다워!"

"그야 뭐,"라며 꽃이 조용히 말했다.

"저 태양과 동시에 태어났으니까요..."

어린 왕자는 꽃이 겸손하지 않다는 걸 예측할 수 있었지, 그치만 그녀는 그 자체로 이미 너무도 감동이었어!

"시간이, 제 생각에, 아침 먹을 때쯤 되지 않았나요,"라며 꽃이 또 덧붙였데.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물주기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잔뜩 혼동스런 가운데서도 퍼득 정신을 차리고 신선한 물을 물뿌리개에 담아 꽃에게 (물을) 주었데.

그렇게 꽃은 어린 왕자의 다소 그늘진 허영심을 자극하며 고통을 주는 법을 알게 되었던 거야. 예를 들면, 어느 날, 꽃의 네(4개) 가시들에 대해 언급하며, 꽃이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야.

"발톱을 가진, 호랑이들이, 올 수도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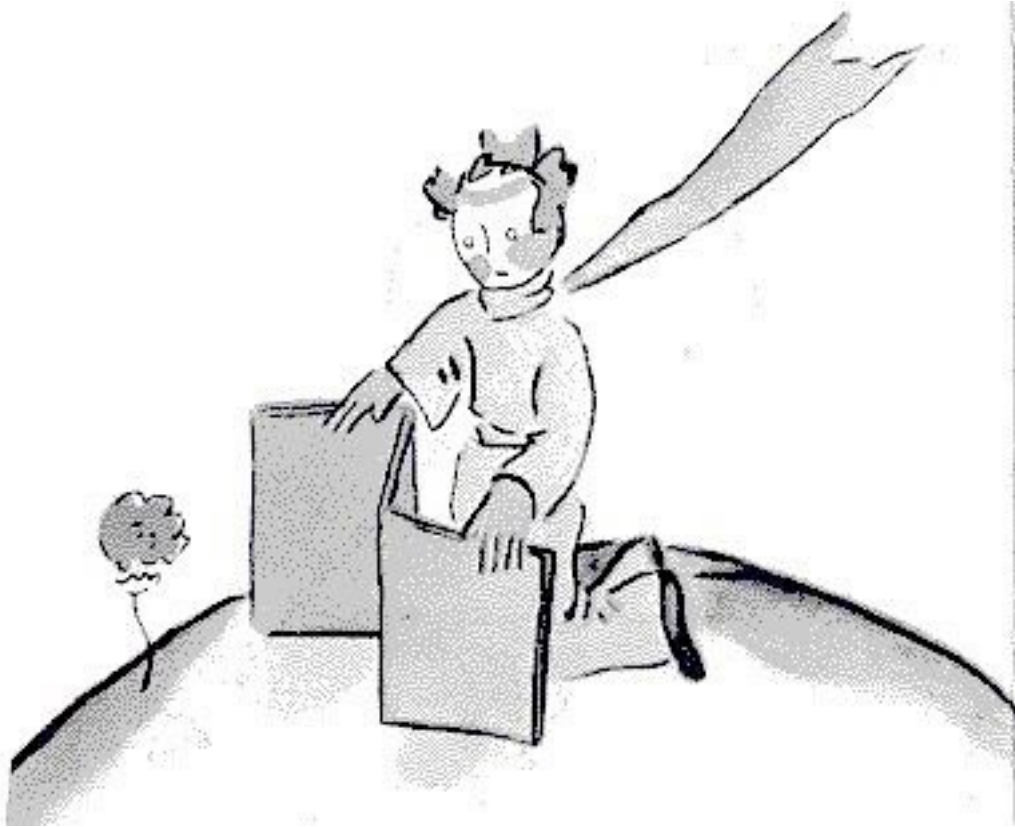
호랑이

"우리 별엔 호랑이가 없는 걸,"라며 어린 왕자가 이의를 제시했지. "게다가 호랑이들은 풀을 먹지 않잖니."

"전 풀이 아니에요."라며 꽃은 상냥히 대답했다.

"아 실례..."

"전 호랑이가 와도 두렵지 않아요, 그치만 바람은 싫어요. 혹시 바람막이 가지고 계신가요?"



바람막이

"바람은 끔찍해요... 식물에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제야 어린 왕자는 김새챘지. 이 꽃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란 것을 말이야...

"저녁엔 제게 유리 덮개를 씌어주세요. 여긴 너무 추워요. 몹시도. 제가 온 곳에선..."



유리 덮개

하지만 그 꽃은 말을 채 끝맺질 못했지.

씨앗 상태로 여길 왔으니.

그녀로선 자신이 어디서 온 건지 감도 잡을 수 없었던 거지.

그런 순진한 거짓말이 통할 거라 생각한 그녀 자신이 스스로에게 무척이나 굴욕감을 느꼈나 봐,
그녀가 헛기침을 두 세번 정도 하더니 이내 어린 왕자에게 툭 한 마디 던졌어.

"바람막이는요?..."

"응 가지려 가려다가 네가 말을 계속하길래!"

그러자 연민을 자아내려는 듯 꽃이 헛기침을 또 했다.

결국 어린 왕자는 꽃에 대한 자신의 온정에도 불구하고 곧 그 꽃을 의심하게 된 것이지.

사소한 걸 심각하게 말하려다 보니 결국 불행하게 된 것이었거든.

"전 듣지 말았어야 해요,"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게 털어놓았어. "아저씨 꽃의 말을 너무 잘 들어주어선 안 돼요. 꽃은 그냥 바라보고 향기를 맡아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내 별을 향기로 온통 채워주었지만 전 그다지 기쁘지 않았어요. 성가시게 만들고 제 마음을... 제 마음을 끌리게만 만들었어요..."

어린 왕자가 내게 다시 들어났어.

"전 하나도 이해못했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꽃을 판단해야 했었는데. 꽃은 절 난처하게 하고 가르치려 들었던 거예요. 내가 도망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서투른 장난질에 연약함이 있음을 눈치챌어야 했는데. 꽃들은 너무 모순적이에요! 아님 제가 너무 어려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걸 수도 있어요."

9 장



내 생각에, 어린 왕자는, 철새들이 이동할 때 함께 그 별을 떠났던 거 같아.

내 생각에, 어린 왕자는, 철새들이 이동할 때 함께 그 별을 떠나왔던 거 같아.

출발하던 날 아침,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을 깨끗이 청소했데.

우선 활화산(활동 중인 화산)들을 조심히 청소했데.

그 별엔 두 개의 활화산이 있었데.

아침 식사용 음식을 데우기엔 편리했데.

그리고 어린 왕자의 별에는 사화산(활동을 멈춘 화산)도 하나 있었데.

하지만 어린 왕자는 말했지.

"모를 일이니까!"

어린 왕자는 그 사화산도 조심스레 청소해주었데.

그렇게 화산들은 잘 청소만 해주면 안전하고 규칙적으로 불을 내뿜고 절대 폭발하는 일은 없데.

화산 분출은 굴뚝의 화염과 유사했으니까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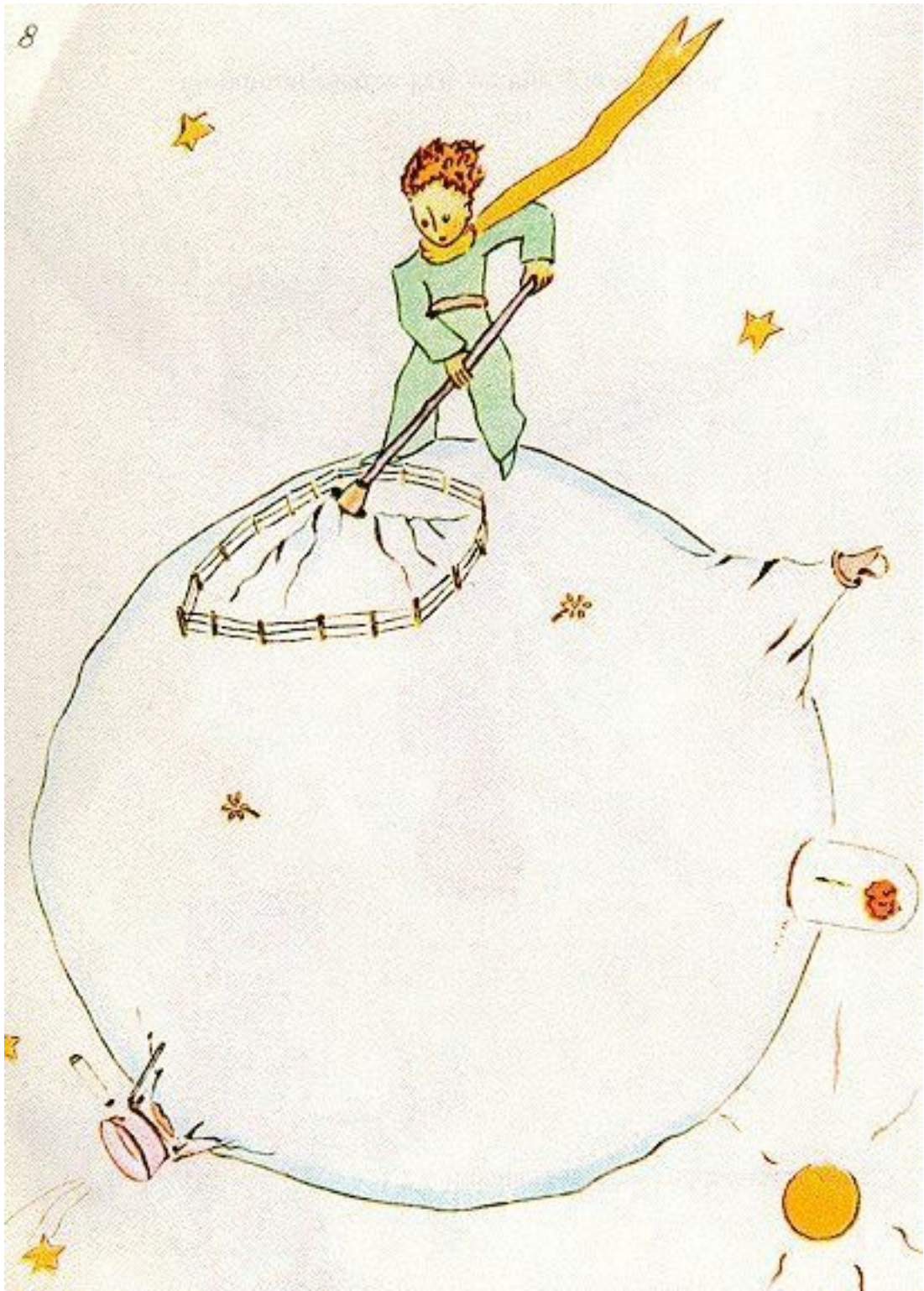
지구에선 우리 자신들이 너무도 크기가 작기에 화산을 청소할 수 없을 뿐이야. 그래서 지구에서 화산 분출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야.

어린 왕자는 또한 다소 풀(기운)이 죽어선, 마지막 남은 바오밥나무 씨앗들도 모두 제거했데.

언제 다시 이 별로 돌아올지 몰랐기 때문이지.

늘 하던 일이 오늘따라 달콤한 친숙함으로 변했지.

마지막으로 어린 왕자는 꽃에게 물을 주고 유리 덮개를 잘 덮어주려다 그만 눈물이 날 거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말았지.



굴뚝 청소

"잘 있어."라며 어린 왕자가 꽃에게 말했어.

그치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또 말했어.

꽃이 헛기침을 했어.

그건 감기에 걸려서가 아니야.

"제가 바보였어요,"라며 마침내 꽃이 말했어. "용서해줄래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비난의 말이 없는 것에 어린 왕자는 적잖이 놀랐데.

그래서 유리 덮개를 손에 든 채 서 있었던 거야.

이 차분한 상냥함이 이해 되지 않았던 거지.

"그래요,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라며 꽃이 말했데. "당신은 몰랐죠. 이것도 제 실수예요. 하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치만 아세요, 당신도 저만큼 어리석었어요. 그러니 부디 앞으로는 행복하시길... 유리 덮개는 그냥 두고 가세요. 전(저는) 이제 더는 그게 필요치 않아요."

"그치만 바람이..."

"전 그렇게 춥지 않아요... 신선한 밤바람은 제 건강에도 오히려 좋은 걸요. 전(저는) 꽃이잖아요."

"그치만 야수(호랑이나 사자 같은 무서운 동물)가..."

"나비가 찾아오려면 벌레 두서너 개쯤은 참고 견뎌야 하는 법이에요. 예뻐리야 없겠지만. 그렇지 않음 누가 절 찾아오겠어요? 당신은 떠나실 거죠. 야수들에 대해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겐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녀는 순진한 표정으로 자신의 네(4개) 가시들을 보여주더라.

그런 다음 그녀가 덧붙였지.

"오래 있지 마세요, 헛갈린다고요. 가시려면 어서 가버리세요."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게야.

그토록 자존심이 강한 꽃이었던 것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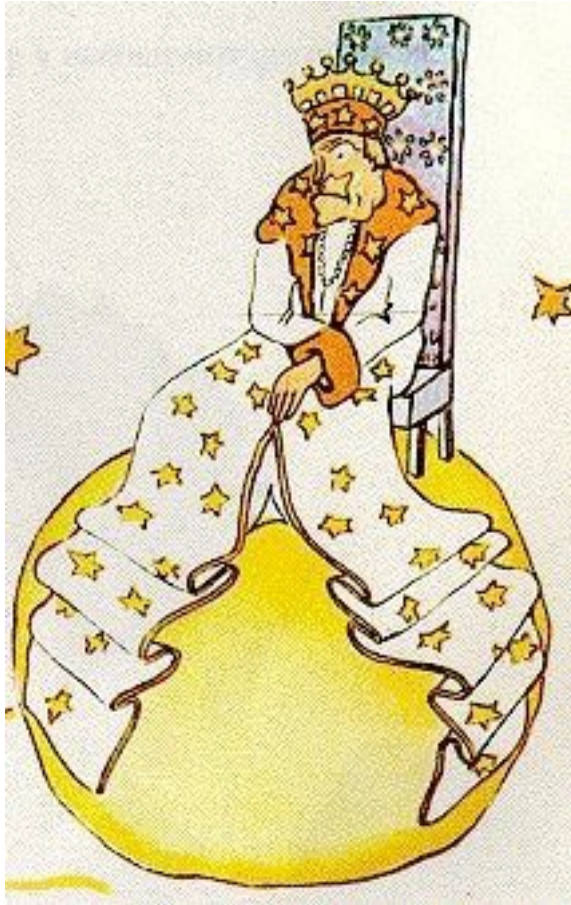
10 장

어린 왕자의 별 가까이로 소행성 325호, 326호, 327호, 328호, 329호와 330호가 있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별들을 방문해보기로 마음 먹고 떠난 거였지.

어린 왕자가 간 첫 번째 별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자주빛’(옛날부터 황제를 상징하는 색이 자주색임.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 아님) 옷과 (왕이 입는) 가운을 입고서 홀로 그렇게 홀로 그러면서도 근엄한 왕좌(왕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왕

"어허! 신하가 왔구먼!" 어린 왕자를 보자, 그 왕이 소리쳤어.

어린 왕자가 혼잣말로 말했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다짜고짜 신하라니 참?"

어린 왕자는 왕을 몰랐지만 이 문제는 간단했어.

왕에겐 모두가 그의 신하였던 거야.

"내가 더 잘 볼 수 있게 좀 더 가까이 오너라."라며 마지막까지 왕의 자긍심을 뽐내려는 듯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자리를 찾아 보았지만, 별이 전부 왕의 장엄한 가운(윗옷)에 덮여 있는지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서 있기만 했다.

그래서 지루해 하품을 하게 되었지.

"짐 앞에서 하품을 하다니 무엄한지고."라며 왕이 말했다. "이제 하품을 금하노라."

"어쩔 수 없는 걸요,"라며 어린 왕자가 혼란스러워서 대꾸했지. "긴 여행을 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꼬요..."

"그렇담,"라며 왕이 말했데. "하품을 허락하노라. 하긴 짐도 여러해 동안 남의 하품을 본 적이 없으니. 하품이 짐에게도 신기하긴해. 그럼 어디 어서! 하품을 더 해보거라. 어명(명령)이다."

"잠 다 깬데요... 이젠 할 수 없어요..."라며 얼굴을 붉히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음! 음!" 왕이 대답했다. "그렇담 짐...짐이 네게 하품을 이따금씩만 할 것을 명하노라..."

이 말을 하며 살짝 말까지 더듬는 걸로 봐선 왕께서도 살짝 당황하셨나 봐.

왕은 자신의 위엄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데.

그러니 불복종을 견딜 수 없었던 거지.

그는 절대군주(왕이 곧 하늘이자 국가라는 사상)였으니까.

하지만 그 왕은 본심이 착한 사람으로 명령을 내리더라도 이치에 맞게 합당한 명령을 내리는 왕이었던데.

"내가 명령할 때,"라며 왕이 말했다. "내가 어느 장군보고 바닷새로 변해라 명했는데, 그 장군이 내 말대로 안 변했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닌 것이다. 내 잘못인 것이다."

"얹아도 될까요?"라며 소심해진 어린 왕자가 물었지.

"얹는 걸 명하노라."라며 왕이 자신의 화려한 가운을 조금 당겨주며 대답했지.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미 놀란 상태였다. 견혀진 가운에 드러난 그 별이 너무 작았던 게지.

대체 왕이 누굴 다스린다는 거지?

"폐하,"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부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도 된다고 허락해주십옵소서."

"내게 질문을 허락하노라."라며 왕이 말했다.

"폐하는, 무얼 다스리시나요?"

"전부다."라며 왕이 대단히 간단명료하게만 대답했어.

"주로 어떤?"

왕이 사려 깊게 손짓을 해가며 자신의 별과 다른 별들을 가리켜보았어.

"저 전부다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전부 다 말이다."라며 왕이 대꾸했네.

한 마디로 말해 그는 절대군주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었던 거야.

"별들도 당신께 복종하나요?"

"물론이란다,"라며 왕이 말했다. "복종한단다. 암 즉시 복종하고 말고. 난 규율이 없는 걸 못 참거든."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면 좋으련만.

그럼 어린 왕자도 자신의 의자보고 스스로 당겨앉아지라고 명령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지는 해를 하루동안에만해도, 마흔 네번, 아니 일흔 두 번, 아니 심지어 백 번, 아니 더 심지어 이백 번은 더 볼 수 있을 텐데! 자신이 떠나온 별에 대한 추억 때문에 좀 슬퍼진 어린 왕자가 왕에게 간청을 드렸네.

"지는 해를 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해에게 지라고 명령해주세요용..."

"만약 내가 장군보고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 명하거나, 비극을 쓰라 하거나, 그렇지 않음 바닷새로 변하라 명하는데도, 그 장군이 그리 하지 못하면, 그건 그가 잘못된 거겠니 아님 내가 잘못된 거겠니?"

"폐하 잘못이요."라며 어린 왕자는 단호히 말했네.

"그렇다. 우리 서로에게 서로가 해낼 수 있는 지시만 내리자꾸나 또 그리해야 되지 않겠니."라며 왕이 말하더라. "권위는 우선 이치에 합당해야 하니까 말이다. 네가 네 백성들보고 바다로 뛰어들라 명하면, 그들에게 폭동을 일으키란 소리지 뭐겠니 또 그리 되고 말 것이다. 내 지시는 늘 합당했기에 내가 지금까지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된 거란다."

"그럼 저의 지는 해는 어찌고요?"

한 번 물은 물음을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앞서 자신의 질문을 상기시키며 말했지.

"네 지는 해는, 음 보자... 그럼 내 지시를 따로 내리마. 하지만 내 권위가 이치에 맞으려면 우선 앞뒤 상황도 호의적이어야 하니 기다리려무나."

"아이참 언제 되는데용?"라며 어린 왕자가 또 또 물었데.

"에헴! 에헴!"라며 왕이 우선은 큰 달력을 살피기 시작하며 대답하더라. "에헴! 에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오늘 저녁이라면 7시 40분까지만 기다리면 된단다! 그럼 내 너에게 내 지시가 어떻게 실천되는지 보여주꾸마(보여주겠노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하고 말았지. 지는 해를 못 보는 게 아쉬웠으니까. 더구나 이 별이 벌써 지루해지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야.

"그럼 여기서 더 할 게 없겠네요."라며 어린 왕자가 왕께 말했지.

다시 떠날 준비를 하며!

"가지 말거라,"라는 명령을 먼저 던진 걸 내심 반색하며(반기며) 왕이 말했지. "가지 말거라. 내 너를 장관으로 임명해주마!"

"네 장관이요?"

"그래... 법무부 장관 말이다!"

"하지만 여긴 재판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야 모르지만,"라며 왕이 말했다. "나는 아직 다 내 왕국을 돌아보진 못했다만. 이젠 내 나이도 있고, 대형 마차도 없고 말이다, 걷는 것도 지치고."

"오! 전 벌써 다 본 걸요,"라며 어린 왕자가 별 반대쪽으로 한껏 허리를 기울여 보더니 말했지. "저 쪽에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럼, 네 자신을 재판하면 되지 않겠니,"라며 왕이 말했어.

이건 참 난감했어(어려웠어). 남을 판정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판별하기란 말이야. 그럭저럭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할 수 있다치면 그건 당신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란 증거이기 때문이지.

"저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저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절 판단할 수 있어요."

더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

"에헴! 에헴!"라며 왕이 말했다. "아무래도 이 별엔 늙은 쥐 한 마리가 사나 보다. 밤에 웬 쥐 소리가 그리도 나는지. 그러니 네가 그 늙은 쥐를 재판하려무나. 오래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려면, 더구나 그 쥐의 목숨이 네 자비에 달려 있으니, 넌 매번 쥐를 방면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거면 되지 않겠니."

"저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사형 선고를 내리기 싫은걸요, 전(저는) 그만 갈래요."

"아니다."라며 왕이 말했다.

그치만 어린 왕자로선 이미 갈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였기에 나이 드신 왕의 만류가 먹힐 게 아니었다.

"만약 당신의 명령이 엄격히 지켜지길 바라신다면, 합당한 걸 제게 명령해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길 1분 안에 떠나길 명해주신다거나 하는 거요. 그래야 저도 호의를 가지고 당신의 명령을 따를 수 있지 않겠어요..."

왕에게서 아무런 대꾸가 없었데.

어린 왕자는 우선 머뭇거렸데, 그런 다음, 한 숨을 휴우 내쉬곤, 막 출발하려는데.

"내 너를 대사(외국에 파견나간느 외교관)로 임명하마."라며 왕이 서둘러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이로써 왕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위를 지킬 수 있었던 거지.

"어른들은 참 이상해."라며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을 떠나며 혼잣말을 했지.

11 장

두 번째 별엔 허영심쟁이가 살고 있었데.



허영심쟁이

"아! 아! 내 숭배자가 도착하는군!"

어린 왕자가 보이자 먼 거리에서부터 허영심쟁이가 감탄 감탄 해대며 외쳤지.

허영심쟁이에겐 모두가 자신을 찬미(숭배)하려는 팬으로 보였으니까.

"안녕하세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모자를 쓰셨네요."

"인사하기 위해서란다,"라며 허영심쟁이가 말했어. "내가 갈채를 받을 땐 인사하기 위함이지.

애석하게도 이 길로 아무도 안 지나가서 그게 문제지만."

"어, 네?" 종체 뭘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네 두 손뼉을 마주쳐보겠니."라며 허영심쟁이가 권했다.

어린 왕자가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심쟁이는 근사하게 자신의 모자를 벗어 정말 정중히도 인사해주었데.

"이 분이 왕보다 더 재밌는 걸."라며 어린 왕자가 혼잣말로 말했지. 그래서 거듭 거듭 손뼉을 마주쳐주었지 뭐야.

그럴 때마다 허영심쟁이는 자기 모자를 벗어 인사하고 또 하더라.

이렇게 5분 쯤 지나니 어린 왕자는 이 놀이가 무료해졌어.

"그럼 그 모자를 떨어뜨리려면,"라며 어린 왕자가 물었어. "어떻게 하면 돼요?"

하지만 허영심쟁이에겐 그 말이 들리지 않았어. 허영심쟁이에겐 칭찬의 말 외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으니까 말이야.

"넌 정말 나를 많이도 찬미하는구나?"라며 그가 어린 왕자보고 물었다.

"찬미가 뭔데요?"

"그건 바로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옷 잘 입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지적이란 뜻이란다."

"그치만 이 별엔 당신 외엔 아무도 없잖아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나를 찬미 해다오!"

"당신을 찬미해요,"라며 어린 왕자가 살짝 자신의 어깨를 으쓱해보이며 말했다. "그치만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떠났지.

"어른들은 정말 별나다니깐."

어린 왕자가 다시 여행을 떠나며 읊조렸어.

12 장



술꾼

다음 별엔 술꾼이 살고 있었어.

이번 방문을 짧았지만 어린 왕자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안기고 말았지.

"뭐 하세요?"라며 어린 왕자가 술꾼에게 말했어.

근데 그는 말없이 자기 앞에 빈 술병들이 든 박스와 술이 가득 든 병들을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있었데.

"술 마시지."라며 술꾼이 말하더라.

그 말이 무척 애처로워보였데.

"술을 왜 마시는 데요?"라며 어린 왕자는 물었지.

"잊으려고 마신단다."라며 술꾼이 말하더라.

"무얼 잊으시려고요?"라며 애처로운 마음에 어린 왕자가 물었데.

"내가 부끄럽다는 걸 잊으려고 마신다."라며 고개를 푹 떨구며 술꾼이 털어놓더라.

"뭐가 부끄러우신데요?"라며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또 물었어.

"그야 술 마시는 게 부끄럽지!" 그러더니 술꾼은 입을 꼭 다물더라.

어린 왕자는 여간 어안이 빙빙한 게 아니었어.

"정말 어른들은 너무 별나다니깐."

혼잣말을 남기며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을 떠났지.

13 장

네 번째 별엔 장사꾼이 살고 있었어.

어린 왕자가 도착할 무렵 그 사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일에 한창 바빠 있었데.



장사꾼

"안녕하세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담○불이 꺼져 있어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안녕. 15 더하기 9는 22. 22 더하기 6은 28. 정말 다시 세볼 세도 없다니깐. 26 더하기 5는 31. 휴! 그러니까 자그마치 5억 162만 2,731개군."

"뭐가 5억 개란 말이에요?"

"응? 너 아직도 거기 있었니? 5억 개란... 내가 어디까지 했지... 일이 너무 많다니깐! 가만 보자, 내가 지금 놀 때가 아니지! 2 더하기 5는..."

"뭐가 5억 개냐구요?" 한 번 물으면 절대 놓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도 거듭 물었지.

장사꾼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지금껏 이 별에서 54년을 살아왔지만, 그 동안 지금처럼 방해 받은 적이 딱 세 번 있었다. 첫 번째는 22년 전에 웬 딱정벌레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야. 그게 어디서 왔을라구. 어찌나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소란스럽게 굴던지 썸을 네 번이나 틀리고 말았지. 두 번째, 11년 전에, 운동부족으로 류머티즘 관절염이 와서 고생 고생 생고생을 했을 때고. 그렇지만 난 한가로이 산책할 시간이 없었지. 난 진지하다고. 세 번째 언젠줄 아니...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내 말인즉슨 5억 개란..."

"억이 뭔데요?"

장사꾼은 그제야 이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가 없다는 걸 감 잡았지.

"저 하늘에 때때로 반짝이는 게 보이지, 그게 억 개란다."

"파리요?"

"아니, 반짝이는 작은 거 말이다."

"꿀벌요?"

"아니. 게으름뱅이도 웃게 만드는 저 작고 귀여운 황금빛깔 반짝이들 말이다. 난 지금 심각하다고! 장난칠 기분이 아니야."

"아! 별들요?"

"그래 별들 말이다."

"5억 개의 별들로 뭐하시게요?"

"정확하게 하자구나. 정확히 5억 162만 2,731개란다."

"그러니까 이 많은 별들로 뭐하시는데요?"

"뭘 하나고?"

"네."

"아무것도. 난 그저 저들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별들을 가지셨다고요?"

"그래."

"하지만 제가 만난 왕은..."

"왕들은 소유하진 않아. 그들은 통치할 뿐이지. 이것과 그것 별개의 문제라고."

"별들을 소유해서 어디다 써먹게요?"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어떻게 부자가 되신다는 건데요?"

"누가 나타나서 별들을 사줄 때마다 말이다."

"이 분도,"라며 어린 왕자가 속으로 말했어. "술꾼과 비슷하시군."

하지만 질문을 추가로 더 물었지.

"별들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데요?"

"그럼 누구 건데? 대답해보렴, 심술쟁이야, 그러니 바로 나 장사꾼 거지."

"모르겠는데요. 누구건지는."

"그러니까 내 거란 거란 말이다, 내가 가장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다시라고요?"

"그야 물론. 네가 만일 누구 소유도 아닌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면 그건 틀림없이 네거다. 네가 누구 소유도 아닌 토지를 발견하게 되도 그건 물론 너의 것이지. 네가 뭔가를 맨 처음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에 대한 특허를 네가 가지게 되는 거야, 너의 것이란 증거지. 내가 별들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란다. 누구도 저 별들을 소유할 생각은 내 이전에 해본적이 없으니 말이다."

"그렇네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별들로 뭐하시게요?"

"거야 장사를 하기 위함이지. 난 별들을 세리고 다시 세본단다,"라며 장사꾼이 말했다. "그건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난 진지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어린 왕자로선 여간 만족스럽지 못한 대화가 아니었다.

"제게 목도리가 생기면, 그걸로 제 목을 감싸거나 추위를 막아줄 수 있어요. 제가 꽃을 소유하면 제 꽃을 꺾거나 어딘가로 옮길 수도 있고요. 그치만 별들을 어떻게 따신다는 건가요?"

"아니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니, 난 그저 저 별들을 은행에 넣어둘 뿐인 거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데요?"

"별들의 개수를 작은 종이에 적어둔다는 의미다. 이 종이를 서랍장에 넣고 잠근다는 거지."

"애개, 그게 다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거면 족해!"

"이 무슨 똥단지같은 소리지."라며 어린 왕자는 생각했어. "꼭 시를 읽는 느낌인데 진실되겐 들리지 않아."

어린 왕자는 어른들의 이 심각한 사고방식들에 대해 여간 이해에의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었다.

"저는,"라며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꽃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매일 물을 주는 꽃이요. 그리고 제가 매주 굴뚝 청소를 해주는 화산도 세 개나 있고요. 저는 사화산(활동하지 않는 화산)도 청소해준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소유한 화산들도 다 쓰임새가 있어요, 제 꽃도 유용하고요. 그치만 저 별들이 당신에게 어떤 유용함이 있다는 건지..."

장사꾼은 입을 열었지만 이내 곧 말문이 막혀버렸어.

그래서 어린 왕자도 눈치껏 그곳도 떠나게 된 거란다.

"어른들은 정말 다들 괴상해."

여행을 다시 시작하며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14 장

다섯 번째 별은 좀 이상했어.

가장 작았기 때문이지.

가로등과 ‘불 키는 사람’이 서 있기에 공간이 꽉 찼기 때문이지.

사실 집도 사람도 없는 별에 과연 가로등과 불 키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어린 왕자로선 선득 납득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어린 왕자는 혼자 말했지.

"아마 이 사람도 어리석을 거야. 하지만 왕이나 허영심쟁이나 장사꾼이나 술꾼보다 덜 하겠지. 적어도 그의 일은 의미가 있으니까. 가로등에 불을 키는 건 마치 별이나 꽃에 새 생명을 주는 거와 같고, 가로등에 불을 끄는 건 꽃이나 별이 잠 들게 해주는 거와 같잖아. 아주 좋은 직업이야. 아름답기도 하고 무척 유용해보여."



불 키는 사람

그 별에 다가간 어린 왕자가 공손히 불 키는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지.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끄셨나요?"

"명령에 따른 거란다."라며 불 키는 사람이 대답했다. "그래 안녕하니."

"명령이 무엇이었는데요?"

"내 가로등을 끄란 거였지. 그럼 안녕(굿 이브닝)."

그가 가로등에 다시 불을 붙였다.

"하지만 왜 방금 또 불을 켜신 건가요?"

"그게 명령이었으니까."라며 불 키는 사람이 대꾸했다.

"이해가 안 가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굳이 이해할 필은 없단다,"라며 불 키는 사람이 말했다. "그게 내 일이니 말이다. 그럼 안녕."

그러더니 그가 가로등을 켜다.

그런 다음 그가 빨간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자신의 이마를 닦았다.

"여기서 고된 일을 하고 있단다. 예전엔 할만 했는데. 지금은 낮과 밤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서 말이다. 나도 하루의 나머지 시간엔 좀 쉬어야 하는데, 그래야 밤의 나머지 시간에 좀 자둘 수 있는데 말이다..."

"그럼 명령이 바뀐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다."라며 불 키는 사람이 말했다. "애석하게도! 이 별은 수년간 더 빨리 더 빨리 회전하고 있지. 명령이 바뀐 건 아니야!"

"그래서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단다, 그러니 내가 쉴 틈이 없지. 1분마다 가로등을 켜다 끄야 하니까!"

"웃겨요! 여기선 낮이 1분이라니요!"

"웃길 일은 아니란다,"라며 불 키는 사람이 말했어. "우리가 대화를 나눈 후 벌써 한 달이 흘렀으니."

"한 달요?"

"그래. 30분. 30일 말이다! 그럼 안녕(저녁인사)."

그러더니 그가 가로등 불을 켜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는 지시사항에 맞추어 자신의 일을 성실히하고 있는 그가 사랑스러웠다. 그러자 예전에 한 번 자신의 의자를 끌어당기면서까지해서 지는 해를 마냥 바라보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요... 어떻게 하면 쉬실 수 있는지 알거 같아요..."

"난 항상 쉬고 싶단다."라며 불 키는 사람이 말했어.

"한 사람이 성실하고 게으를 수만 있다면." 어린 왕자가 말을 이어갔다. "이 별은 아저씨가 세 걸음이면 다 돌만큼 너무도 작아요. 그러니 천천히 걸어가시면 해가 항상 떠 있을 거예요. 그럼 걸으면서 쉬실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낮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구나."라며 불 키는 사람이 말했다. "난 잠을 좀 더 자고 싶거든."

"애석해라."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애석하지."라며 불 키는 사람이 말했다. "안녕." 그러더니 그가 가로등의 불을 켰다.

"지금껏 여행에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를 무시할 테지. 왕이나, 허영심쟁이, 술꾼, 장사꾼들은 말이야. 하지만 이 사람은 내게 전혀 우스꽝스럽지 않아.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니까."

어린 왕자는 그와 헤어지는 게 못내 아쉬워 한숨 지으며 혼잣말을 다시 했어.

"내 친구로 삼고 싶은 유일한 분인데. 그치만 그의 별은 정말 너무도 작아. 두 사람이 있을 공간도 없어..."

어린 왕자는 무려 24시간 만에 지는 해를 1440번이나 볼 수 있는 이 축복받은 별을 떠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애석했어. 하지만 이별을 인정 않을 수 밖에 없단 생각이 들어 어린 왕자도 이내 떠나고 말았지.

15 장

여섯 번째 별은 열 배는 큰 별이었어.

거기엔 엄청 큰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 한 분이 거주하고 계셨지.



지리학자

"어이! 탐험가 한 분이 오셨군!"라며 어린 왕자를 보자 그가 소리쳤어.

어린 왕자는 책상 위 한 쪽에 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 벌써 엄청 먼 여행을 해왔기 때문이야!

"그래 어디서 오는 길이니?"라며 노신사가 말했어.

"이 큰 책은 다 뭐예요?"라며 어린 왕자가 물었어.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건가요?"

"난 지리학자란다."라며 노신사가 말했어.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와, 강과, 도시와, 산과 사막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과학자란다."

"무척 재미난데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마침내 직업 다운 직업을 찾았나 봐!" 어린 왕자가 힐끔 힐끔 지리학자가 사는 별을 둘러보았지. 정말이지 이토록 (풍경이) 경이로운 별은 본 적이 없었어.

"정말 아름다운 별이네요. 여긴 바다가 어디 있나요?"

"모른단다."라며 지리학자가 말했어.

"앗!" 이 부분에서 어린 왕자는 실망하고 말았지. "그럼 산은요?"

"그것도 모른단다."라며 지리학자가 말했어.

"그럼 도시나 강들 아님 사막은요?"

"그것도 역시 난 모른단다."라며 지리학자가 말했어.

"아니 당신은 지리학자라면서요!"

"물론이지,"라며 그 지리학자가 말했어. "하지만 난 탐험가는 아니란다. 내겐 탐험가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도시, 강, 산, 바다, 해양과 사막을 찾는 건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란다. 지리학자란 한가로이 떠돌 수 없을만치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잠시도 사무실을 비울 수 없단다. 하지만 탐험가들의 방문은 언제나 환영한다. 우린 그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두거든. 그들의 기억에서 흥미로운 게 있음, 우선 우리 지리학자들은 그들 탐험가들의 덕성부터 살피지."

"그건 또 왜요?"

"거짓말을 하는 탐험가들은 우리 지리학 책에 대참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란단다. 또한 황여 탐험가가 술을 잔뜩 마시기라고 했다면 더욱 말이다."

"아니 왜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술은 사물을 두 개로 보이게 하거든. 그럼 지리학자는 멋도 모르고 멀쩡히 잘 있는 산 하나를 두 개나 있다고 기록하게 되지."

"하긴 그런 사람을 알긴 하죠."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그는 실은 나쁜 탐험가가 되려 했거든요."

"가능하다면, 그런 이유로 탐험가들의 덕성이 착하면 좋단다, 그럼 다음이면 우리 좀 더 그들의 발견에 대해 조사해보지."

"그럼 된 건가요?"

"아니. 아직은 아니란다. 탐험가들에게 증거를 제시해달라 말하지. 예를 들면 그들이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 증거로 큰 돌을 가져와달라는 식으로 말이다."

지리학자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잡았어.

"그래 넌 멀리서 왔다고! 너도 탐험가겠구나! 그래 네 별에 대해 설명해다오!"

지리학자는 자신의 공책을 펼치더니 연필을 깎았어. 그들은 일단 연필로 탐험가들의 말을 적다, 탐험가들이 증거를 확실히 제시하면 그때 가서 잉크로 그걸 다시 적는다는 거야.

"그래서?"라며 지리학자가 물었어.

"오! 집이요(오! 제 별을 물어신 거예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게 재미난 곳은 아닌데.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세 개. 두 개는 활화산(활동 중인 화산)이고요, 사화산(꺼진 화산)도 하나 있어요. 하지만 어찌 될진 몰라요."

"모른다라."라며 지리학자가 말했어.

"제겐 또한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린 꽃은 취급하지 않는데..."라며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니 왜요! 엄청 예쁜데요!"

"꽃은 순간 살다 가잖니."

"순간 살다니, 그게 무슨 말인데요?"

"지리학은,"라며 지리학자가 말했어. "온갖 학문들 중에서도 가장 진지한 학문이란다. 결코 폼으로 기술하진(적지는) 않아. 산의 위치는 변하지 않잖니 그럼 우린 기록한단다. 바다의 물도 비워지지 않잖니 그러니 우리가 기록해두지. 우린 영원한 것들을 다룬단다."

"하지만 사화산(꺼진 화산)도 언제든 다시 분출할 수 있어요."라며 어린 왕자가 끼어들며 말했어. "근데 순간 살다가... 그게 무슨 말인데요?"

"화산이 활화산(활동 화산)이든 사화산(꺼진 화산)이든 우리에게겐 매한가지란다."라며 지리학자가 말했어. "중요한 건 그 산의 존재란다. 쉽게 변하지 않잖니."

"하지만 순간 살다가가 무슨 말이냐고요?" 한번 질문을 했다하면 쉽게 물러나지 않는 어린 왕자가 거듭 거듭 물었어.

"그건 누군가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의미란다."

"그럼 제 꽃도 죽음이 임박한 건가요?"

"물론이지."

"제 꽃이 죽는다니,"라며 어린 왕자가 생각했어. "그 앤 이 세상에서 자길 지켜내기엔 가시 네 (4) 개가 다인데! 그런 그넌 혼자 두고 오다니!"

거듭 후회감이 몰려왔어. 그의 첫 번째 울컥함이었지. 그치만 용기를 다시 냈어.

"어디 제가 가볼 만한 곳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라며 어린 왕자가 물었지.

"지구에 대한,"라며 지리학자가 대답했어. "평판이 무척 좋더구나..."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추억하며 길을 떠났다.

16 장

그리하여 일곱 번째로 들른 별이 지구였어.

지구는 기존의 별들과는 확연히 달랐지!

111명의 왕들이 있는 곳이었던, 물론 흑인 왕들도 포함해서 말이야.

또한 7천 명의 지리학자와, 90만 명의 장사꾼들과, 750만 명의 술꾼들, 그리고 3억 1,100만 명의 허영심쟁이들을 포함해 인구만 20억에 달하는 큰 별이었어.

지구 크기를 개념적으로도 잡기 위해서,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 여섯 개 대륙에서 밤마다 가로등의 불을 키는 사람만해도 46만 2,511명에 달했다는 얘길(얘기를) 해주려고 해.

조그만 떨어져서 본다면 그야말로 장관이지.

가로등 불 키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흡사 오페라의 발레단 같거든.

먼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불 키는 사람들이 가로등 불을 밝히고 나면 이후 그들은 자러 갔고, 이후 다시 중국과 시베리아의 램프 밝히는 춤꾼들이 무대에 춤을 추며 오르지.

그런 다음 그들도 뒷무대로 사라지고 나면 이윽고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등불을 밝히는 사람들의 차례가 돼.

그런 다음엔 아프리카와 유럽 차례고, 그 다음은 남아메리카로 이어져, 그런 다음엔 북아메리카로까지 옮겨가지.

이 순서는 틀리는 법이 없었어.

그야말로 장엄한 광경이라 한 이유가 이거야.

다만 북극 가로등 등불은 딱 하나였는데 불을 밝히는 사람도 한 명 뿐이었지.

그는 남극에 딱 하나 뿐 가로등 램프를 밝히는 이의 동료였어.

이 둘은 남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느긋하게 생활했는데, 1년에 가로등 등불을 딱 두 번만 키면 되기 때문이었지.

17 장

뭔 말을 거창하게 하려다 보면, 허풍이 자연스레 들어가게 돼.

나도 방금 거리의 불 키는 사람들 애길하면서 그랬으니까.

그치만 이는 우리가 사는 별이 어떤지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서였어.

지구엔 사실 사람이 사는 공간은 아주 좁아.

만일 육지에 거주하는 20억 명의 사람을 약간 타이트하게 세운다면 가로(수직방향 길이) 30킬로미터, 세로(수평방향 길이) 30킬로미터 넓이면 족하긴 해도, 어쨌든 마음만 먹는다면 태평양 작은 무인도에다 사람들을 다 모아 놓을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은(어른들은) 자신들이 이 지구상의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다 여길 테니까.

스스로를 큰 바오밥나무로 인식하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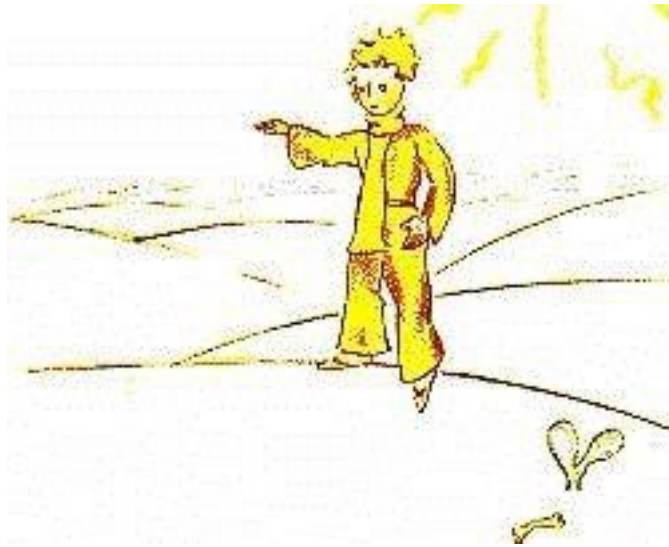
그러니 어른들께 뭔가를 납득시키려거든 숫자를 언급하길 바래.

그들은 숫자를 사랑하니 숫자로 어른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지.

그치만 그런 지루한 계산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쓸모도 없는 일이니.

그냥 이번 일은 날 믿길 바래.



지구별에 착륙

땅에 내린 어린 왕자는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에 적잖이 놀라고 말았데.

잘못 온 건 아닌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다나 봐.

그때 모래바닥에 뭔가 달빛을 받아 원 같은 게 하나 꿈틀거리더라.

"안녕(굿 나잇),"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위험을 무릅쓰고 말이야.

"그래 안녕."라며 뱀이 말했어.

"내가 온 이 별은 이름이 뭐니?"라며 어린 왕자가 물었어.

"지구별, 여긴 아프리카라고 해."라며 뱀이 대답했다.

"아!... 그러니까 지구엔 아무도 안 사는 거구나?"

"여기가 사막이라서 그래. 사막엔 아무도 안 살지. 지구는 무척 크거든."라며 뱀이 말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으며 하늘 높이 올려다보았어.

"예뻐,"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누구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 자신의 별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내 별 좀 보렴. 우리 바로 위에 있잖니... 그치만 엄청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지!"

"예쁜 별이군,"라며 뱀이 말했어. "그래 여긴 어떤 일이니?"

"꽃과 문제가 좀 있었거든."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아!"라며 뱀이 말했다.

그렇게 또 침묵이 이어졌어.



뱀과 마주치다

"사람들은 어디 사니?"라며 어린 왕자가 말을 다시 꺼냈어. "사막엔 우리만 있어 외로운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라며 뱀이 말했어.

어린 왕자는 뱀을 한참 바라보았어.

"넌 재밌게 생긴 동물이구나."라며 마침내 어린 왕자가 말했지. "손가락 마냥 가늘잖니."

"하지만 난 왕의 손가락보단 더 힘이 세단다."라며 뱀이 말했지.

그 말에 어린 왕자는 미소지었지.

"넌 힘이 센 건 아니지... 넌 발도 없잖니... 심지어 여행을 다닐 수도 없고..."

"그래도 난 널 배보다 더 멀리 데려갈 수 있어(입으로 물어서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임)."라며 뱀이 말했다.

뱀이 마치 금팔찌마냥 어린 왕자의 발목을 자신의 몸으로 감쌌어.

"내게 닿는 건 누구든 그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단다,"라며 뱀이 다시 말했다. "하지만 넌 순수해, 별에서 왔으니..."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넌 참 불쌍해 보이는 구나, 이렇게 약한 애가, 이 억센 지구에 오다니. 만일 언젠가 네 별이 무척 그리워지면 말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을 테야. 나라면 할 수 있거든..."

"오! 뭘 말인지는 알겠는데,"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 근데 넌 항상 수수께끼처럼 정말 말을 하는구나?"

"그걸 다 내가 풀 수 있다는 말이었어."라며 뱀이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다.

18 장

어린 왕자는 사막을 거닐어보았지만 마주친 거라곤 꽃 한 송이 뿐이었어.

꽃잎이 세 개인 꽃이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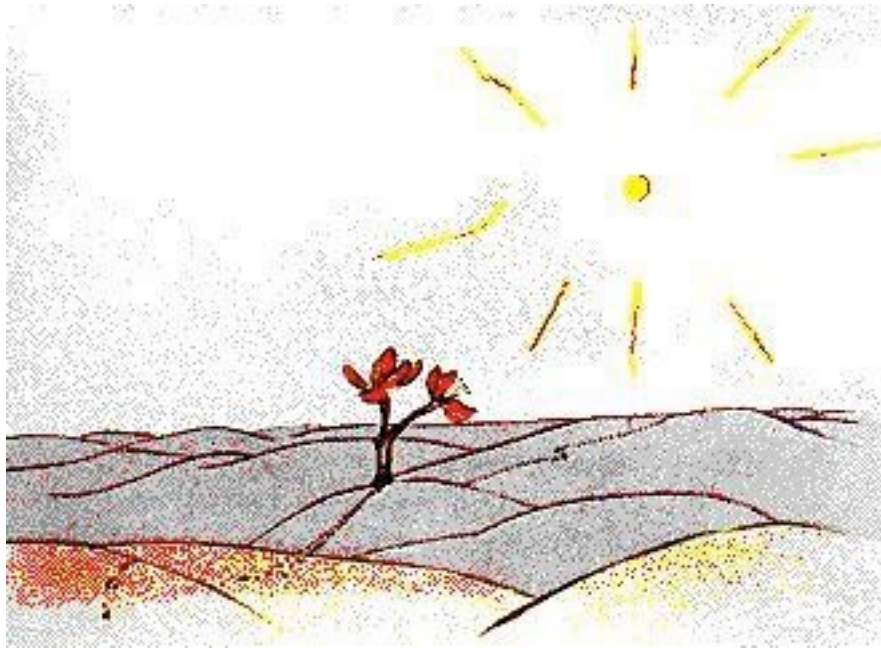
조용하고 다소곳한 꽃 말이야...

"안녕(굿 모닝)."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안녕(굿 모닝)."라며 그 꽃이 말했지.

"사람들은 어딴니?"라며 어린 왕자가 예의 바르게 물었어.

그 꽃은, 언젠가, ‘대상’(사막의 ‘큰 상인’과 낙타들의 행렬을 말함)이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다고 말해주었어.



꽃잎이 세 개인 꽃

"사람들? 그땐 그들이 여섯 내지는 일곱 명쯤 되어 보였어요. 수년 전 얘기죠. 하지만 사람들을 찾긴 여간 어려울 거예요. 바람과 함께 떠돌아다니는 이들이거든요. 사람들에게겐 뿌리가 없기에 매번 쫓돌리며 방랑하는 거예요."

"잘 있어(굿 바이)."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네 안녕히 가세요."라며 그 꽃이 말했지.

19 장

어린 왕자는 높은 산에 올랐데.

어린 왕자의 별에선 산이라곤 무릎높이까지 오는 세 개의 화산이 다였는데.

가끔 그는 사화산(꺼진 화산)을 걸상으로 사용하곤 했다는군.

"이런 높은 산이라면,"라며 어린 왕자가 혼잣말로 말했지. "온 별과 온 사람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겠는데."

그치만 어린 왕자가 산에서 바라본 거라곤 뽕족히 솟은 바위투성이 산봉우리들 그레 그뿐이었지.

"안녕하세요(굿 모닝)."라며 어린 왕자는 무작정 말을 걸며 말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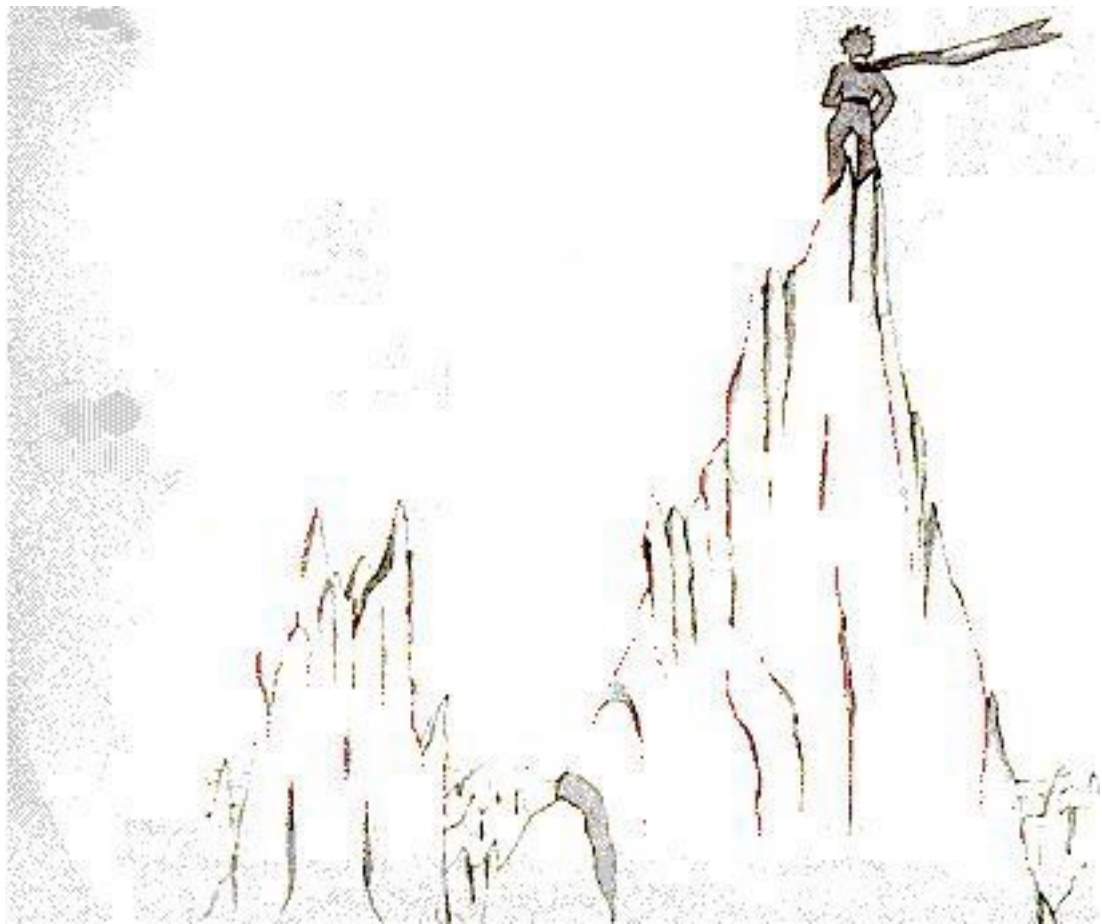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메아리가 들려왔지.

"누구 계세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데.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라는 또 메아리가 들려오더라.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너무 외로워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외로워요... 외로워요... 외로워요..."라는 메아리가 들릴 뿐이었지.



빵점 별(점수가 빵점인 지구)

"정말 이상한 별이야!"라며 어린 왕자는 생각했어.

"이곳은 너무 건조하고 뻥족하고 재미가 없어. 사람들은 상상력도 없나봐. 내 말만 되풀이하잖아... 내 별에 있는 꽃은 그래도 항상 내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는데...(ㅠ_ㅠ 다 그런 법이죠~)"

20 장

하지만 어린 왕자는 모랫길과 바위와 눈뿐인 곳을 한 참 걸어서야 간신히 정말이지 운 좋게도 길로 접어들 수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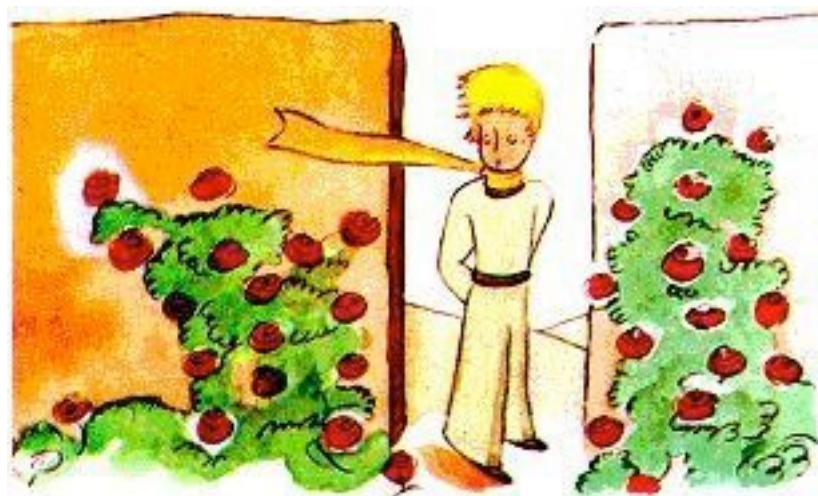
모든 길은 거주지로 이어지게 마련이니까 안심이 된 거지.

"안녕(굿 모닝)."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그건 그곳 정원에 가득한 장미들에게 한 말이었어.

"안녕(굿 모닝)."라며 장미들이 말했네.

어린 왕자는 장미를 바라보았어.

정말 자신의 장미 꽃을 닮은 장미들로 가득했거든.



장미 꽃밭

"너희들은 누구니?"라며 대경실색하며 어린 왕자가 물었지.

"우린 장미들이야."라며 장미들이 말했어.

"아!"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아주 불행한 마음이 들었거든.

자신의 꽃은 온 우주에서 자신이 유일한 장미라고 아는데.

지금 보니 이 정원에만 해도 5천 송이 넘는 장미들이 똑같은 아름다움(모습)으로 자리해 있었기 때문이지!

"그 애(어린 왕자의 별에 있는 장미)가 당황하겠어."라며 어린 왕자가 혼잣말을 했어. "너무 당황해 헛기침을 하거나 창피함을 벗어나기 위해 기절한 척 할지도 몰라. 아님 자존심이 넘 상해선 내가 오히려 자책감을 느끼게 정말로 죽으려 들지도 몰라..."

그때 어린 왕자가 다시 혼잣말을 했어.

"단 하나 뿐인 꽃을 가지고 있어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저 그런 장미 한 송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네. 내 무릎에 닿는 세 개 화산, 더구나 그 중 하나는 아마도 영원히 꺼진 화산인 거고, 이젠 난 위대한 왕자도 뭐도 아니야..."

그러더니 잔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데.

21 장

그때 여우가 나타났어.

"안녕(굿 모닝)."라며 여우가 말하더라.

"안녕(굿 모닝)."라며 어린 왕자도 말했지, 하지만 살며시 든 고개 너머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지.

"난 여겼어,"라며 그 목소리가 말하더라. "사과 나무 아래 말이야."



여우를 만난 어린 왕자

"넌 누구니?"라며 어린 왕자가 물었지. "근데 넌 참 귀엽게 생겼구나..."

"난 여우라고 해."라며 여우가 말했어.

"그럼 나랑 놀아줘,"라며 어린 왕자가 제안했지. "지금 난 슬프거든..."

"난 너랑 놀아줄 수 없어,"라며 그 여우가 말했어. "난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 그럼 미안."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그치만 잠시 생각해보든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근데 '길들인다'는 게 뭐니?"

"넌 여기 사람이 아니구나,"라며 여우가 말했어. "뭘 하던 참이었니?"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근데 '길들인다'가 뭐야?"

"사람들이라고,"라며 여우가 말했어. "사람들은 언제나 총을 가지고 사냥을 하러 다니지. 그 바람에 난 꽤 난처하단 말이야! 사람들은 또 닭을 사육하기도 해. 그 닭이 내 유일한 낙이란다. 너도 닭을 찾고 있었던 거구나?"



사냥꾼

"아니,"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난 친구를 찾고 있었어. 근데 '길들인다'가 무슨 말인 거야?"

"잊혀지지 않도록,"라며 여우가 말하더라. "관계를 맺는다란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응,"라며 여우가 말했어. "넌 그저 내게 어린 소년일뿐이야, 다른 수십만 명의 어린 소년들과 같은 그냥 그저 그런 소년 말이야. 그러니 나도 네가 굳이 필요한 건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난 너에게 그저 수십만 마리의 여우들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 하지만 네가 날 길들이면, 우리 서로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넌 내게 이 세상 유일한 것이 되지. 나도 네게 이 세상 유일한 것이 되고..."

"이해되기 시작했어,"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꽃이 있는데... 내 생각에 그 애가 날 길들인 거 같아..."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라며 여우가 말했어. "지구 상에선 온갖 게 다 벌어지니까..."

"오! 그 앤 지구 애가 아니야."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여우가 이 발언에 무척 흥미로워했어.

"다른 별에서 왔구나?"

"응."

"네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재밌는데! 그럼 암탉들은?"

"없어."

"완벽한 곳은 아니구나."라며 여우가 못내 아쉬워했어.

그치만 여우는 곧 자기 얘기로 돌아갔지.

"내 삶은 단조롭단다. 난 닭들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은 날 쫓아다니지. 모든 닭들은 서로 닮았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슷하게 닮은 것처럼. 그래서 난 좀 싫증이 나던 참이야. 그치만 네가 날 길들인다면, 내 삶엔 광명(햇빛)이 비추게 될 거야. 난 모든 다른 발자국 소리들 속에서도 네 발자국을 구분하게 될 거고. 다른 이들의 발자국 소리는 날 땅속 굴로 들어가게 만들겠지만, 네 발자국 소리만은 날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마치 음악처럼. 자 봐! 보이지, 저기, 밀밭 말이야? 난 빵을 먹지 않는단다. 그러니 저 밀밭들이 내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 밀밭은 내게 어떤 생각도 불러일으키지 않아. 슬프지! 하지만 넌 황금 머릿결을 가졌잖아. 그러니 네가 날 길들인다면 모든 게 경이로워질 거야! 저 밀밭들이 금빛으로 익어갈 때면 난 널 떠올리게 될 거야. 밀들을 쓸어내리는 바람소리에도 난 설레이게 될 거야..."

여우는 입을 다문 채 오래도록 어린 왕자를 바라다보며 서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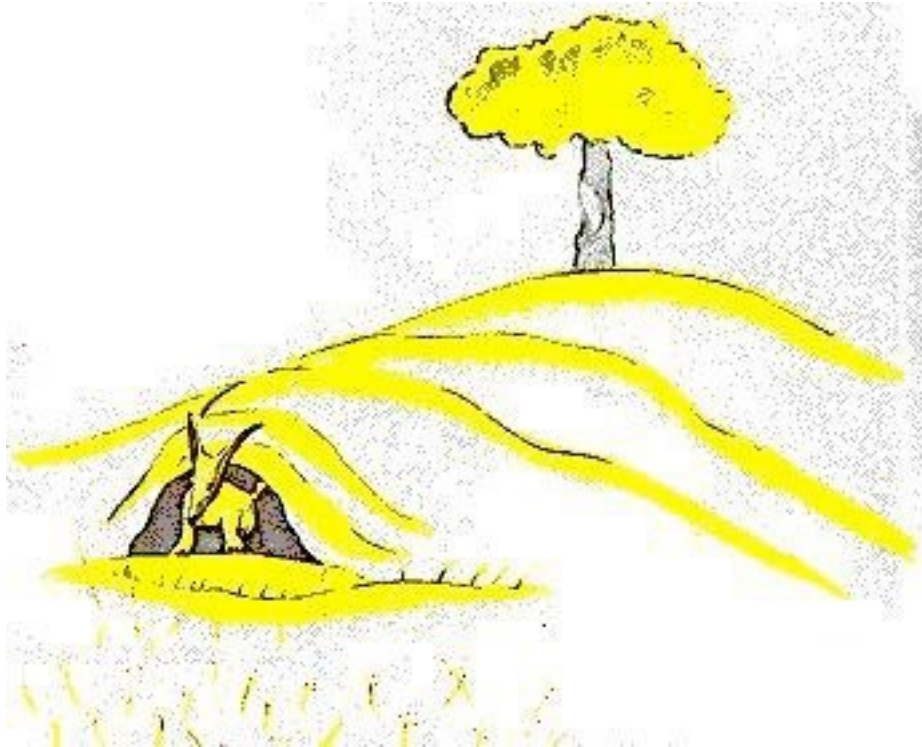
"그러니... 날 길들여죠!"라며 그(여우)가 말했어.

"그렇게,"라며 어린 왕자가 대답했지. "하지만 난 시간이 많지 않아. 난 친구도 많이 만나야 하고 배워야 될 것도 많으니까."

"자신을 길들이는 것만 알면 돼,"라며 여우가 말했어. 사람들은 더이상 어떤 걸 배울 시간이 없단다. 상점에서 물건 살 때도 기존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만 사지. 하지만 친구가 하는 상점이 없기에 더는 친구도 없는 거지. 만약 네가 친구를 원 한다면 날 길들여봐!"

"어떻게 하면 되는데?"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인내심을 발휘해야 해,"라며 여우가 말했다. "우선은 내게서 좀 떨어진 곳에 앉아줘, 저기 좋네, 잔디밭 말이야. 내가 널 힐끔 쳐다보면 너도 날 힐끔 봐줘, 아무 말 없이 말이야. 언어는 오해를 낳지만 매일같이 네가 조금씩 내게로 다가와서 앉아준다면..."



그러니... 날 길들여쥬! (친구가 되어쥬!)

"매번 같은 시간에 와주면 좋아,"라며 여우가 말했어. "그래 준다면, 예를 들어 오후 4시 쯤, 그럼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러다 4시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난 더 행복할 거고. 어서 4시가 왔음 하고 '갈망하며'(바라며) 설레이게 되겠지. 매초 행복의 저울을 달아보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아무 때고 찾아온다면, 난 언제 심장을 졸여야 될지 모르게 되지... 그래서 '의식'(절차 또는 예배식 같은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의식이 뭔데?"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잊히는 게 많으니까,"라며 여우가 말했지. "어느 날 하루를 다른 날 하루와 다르게 만드는 거야, 그건 시간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사냥꾼들 사이에서도 의식이 있단다.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처녀들과 함께 춤을 추러가. 그러니 내게 목요일은 얼마나 행복한 날이니! 내가 포도밭을 거닐어도 아무

도 날 관섭안하지. 사냥꾼들은 그 날 종일 춤을 추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매일 그런 날이 또 계속되면 그것 자체로 또 문제야. 하나도 쉬는 날 같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어린 왕자는 그 여우를 길들이게 되었어.

그러다 떠날 때가 또 가까워진 거지.

"아!"라며 여우가 말했어. "눈물이 나오려고 해."

"네 실수야,"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네가 나보고 널 길들이 달라고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물론."라며 여우가 말했어.

"하지만 그래도 울었을 거야!"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물론."라며 여우가 말했지.

"결국 아무 것도 달라진 건 없어!"

"아니,"라며 여우가 말했어. "옥수수 밭의 색깔이 달라졌잖니, 결국 그걸 얻은 거야 우린."

그런 다음 여우가 덧붙였데.

"가서 장미들을 다시 보고 오렴. 그럼 이 세상에 하나뿐인 네 장미를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와 내게 작별인사 해주면, 내가 네게 비밀선물 하나를 건네 줄게."

어린 왕자는 다시 장미들을 보러 갔어.

"너희들은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어, 너희들은 그냥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로,"라며 어린 왕자는 말했어. "아무도 너희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잖니. 너희 여우를 닮았어. 수 십만 마리의 어느 여우들과 같아. 하지만 그 중 한 마리만 난 친구가 되었어. 이제 그 여우는 내게 특별한 친구가 되었어."

장미들로선 여간 당황스러운 게 아니었지.

"너희들도 아름다워, 하지만 공허할 뿐이야."라며 어린 왕자는 다시 말했어. "너희들은 나 때문에 죽을 리 없어. 물론, 내 장미도 지나가는 행인에겐 어느 장미일 뿐일 테지. 그치만 내게는 그 장미가 너희 모두보다 더 소중한. 내가 그 장미에 물을 준 이후로, 그리고 유리 덮개를 씌어준 이후로, 바람 막이를

설치해 준 이후로, 애벌레들을 잡아준 이후로, 물론 그 중 두 세 마리 애벌레는 나중에 나비가 되라고 살려 두었지만. 그 이후로 그 앤(어린 왕자의 별에 사는 장미 한 송이) 내 얘기를 들어 주었고, 날 칭찬해주며 내게 자랑질을 해주었고, 심지어 입도 꼭 다물곤 해주었지 이따금씩은 말이야. 그때부터 그 앤 내 유일한 장미가 된 거야."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로 다시 돌아왔어.



잘 가 (작별인사)

"잘 있어."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그래 잘 가,"라며 여우가 말했지. "자 이건 내 비밀 선물이야. 그 선물은 간단해. 마음으로 볼 때 쉽게 보여.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지 않아."라며 어린 왕자가 기억에 담아두려고 되내었어.

"네 장미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네가 네 장미를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인 거야."

"내 장미를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라고." 역시나 기억에 담아두려고 말했어.

"사람들이 이 진실을 쉽게 잊을 지라도,"라며 여우가 말했지. "너만은 그래선 안 돼. 자신이 길들이는 것엔 영원한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란다. 그러니 넌 네 장미를 책임줘 주어야하는 거야..."

"난 내 장미를 책임줘주어야해."라며 기억에 담아두기 위해 어린 왕자가 되뇌었어(되풀이해 말했어).

22 장

"안녕하세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안녕하냐."라며 기차 선로변경 통제원이 말했지.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신 거예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여행객들의 안전을 위해 기차 선로 변경을 안내해주고 있단다."라며 기차 선로변경 통제원이 말했어. "승객들이 기차를 타고 오면, 때때로 기차를 오른 쪽으로, 또 때때로는 기차를 왼쪽으로도 보내지."

그때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천둥 같은 굉음이 들리는가 싶더니 칙칙폭폭 기차가 지나갔어.

"저들은 엄청 바쁜가봐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저들은 무얼 저리 찾아가는 거죠?"

"그건 기관사도 모른단다."라며 기차 선로변경 통제원이 말했어.

또다시 반대쪽 방향에서 두번째 섬광이 번쩍하고 빛나는가 싶더니 손살같이 지나갔어.

"벌써 돌아왔어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방금 전 그 가치가 아니란다."라며 기차 선로변경 통제원이 말했어. "엇갈려 지나간 거란다."

"자신들이 사는 곳이 만족스럽지 않아서인가요?"

"누구도 자신이 사는 곳은 만족스럽지 않은 법이란다."라며 기차 선로변경 통제원이 말했지.

곧이어 세 번째 기차가 불을 밝히며 천둥같은 굉음을 내며 지나갔어요.

"첫 번째 기차에 탄 승객들을 쫓아가는 건가요?"라며 어린 왕자가 물었지.

"그건 아니란다, 그들은 누굴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니란다, 전혀."라며 기차 선로변경 통제원이 말했다. "대개 승객들은 자고 있거나 하품을 하고 있지. 어린이들만 창문에 코를 뭍으며 밖을 내다보고 있는 거란다."

"아이들만이 자신들 현재 무얼 찾아나서고 있는가를 알죠,"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그래서 형겅 조각으로 만든 인형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사생결단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옳다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행운아라고들 하지."라며 기차 선로변경 통제원이 말했어.

23 장

"안녕하세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안녕."라며 상인이 말했지.

그 상인은 목마름을 달래주는 정교한 알약들을 팔고 있었는데. 한 번 삼키면 1주일은 그냥 아예 물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살아지는 그런 알약 말이야.

"왜 그걸 파시는데요?"라며 어린 왕자가 물었데.

"시간을 엄청 절약시켜주기 때문이지,"라며 그 상인이 말했데. "전문가들의 계산에 의하면, 이 알약 하나로 1주일에 53 분을 절약해준단다."

"그럼 그 아낀 53분으로 무얼 하세요?"

"원하는 걸 하면 되지..."

"제게,"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53분이 생긴다면, 우물 쪽으로 천천히 걸어갈텐데."

24 장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떨어진지도 이제 여덟째 날이 되어 가고 있었지.

난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을 마시며 상인 얘기를 들었어.

"아!"라며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 "네 추억의 사람들은 무척 아름답구나, 근데 난 비행길 아직도 못 고치고 있지 뭐니. 게다가 이젠 마실 물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 우물로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게 더 행복하긴 하겠는데."

"내 친구, 여우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어린 친구, 여우는 더는 없단다!"

"왜요?"

"여우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목말라 죽을 테니까..."

내 설명이 선득 이해가 안갔는지 어린 왕자가 대꾸했지.

"죽더라도 좋은 친구를 만났잖아요. 전(저는) 여우를 친구로 만난 게 넘 기뻐요..."

"넌 전혀 걱정이란 게 없구나."라며 내가 말했지. 정말이지 어린 왕자는 타는 갈증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 그냥 약간의 햇빛이면 그에겐 충분해 보였지...

하지만 날 보던 어린 왕자가 내 그런 생각에 답했어.

"목 말라요... 우리 우물을 찾으러 나가요..."

난 이미 지쳐 있었어. 이 광활한 사막 한 가운데서 무작정 우물을 찾아나설만큼 무모하지도 않았고 말이야.

그치만 우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

수 시간을 걸었어. 말 없이 밤이 내렸고, 별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지. 처음엔 이게 꿈인가도 싶었어. 이후 목이 타기 때문인지 약간의 열도 느꼈지. 곧 어린 왕자의 말이 내 머릿 속에서 춤을 추더군(타는 목마름으로 서서히 정신이 혼미해져 갔다는 얘기).

"목 마르니, 애야?"라며 내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어.

그는 내 질문에 말이 없었지.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

"물은 마음에도 좋아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선득 와닿지 않아 난 입을 다물었어... 굳이 더 질문할 것도 없었지. 어린 왕자도 이젠 지쳤던 게야.

순간 어린 왕자가 주저앉았어.

나도 그의 옆에 가 앉았지.

잠시 후 그 애가 다시 말했어.

"별들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꽃(꽃 한 송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야,"라며 내가 말 없이 달빛 아래 펼쳐진 무수히 많은 모래 언덕들을 보며 말했어.

"사막은 아름다워요."라며 어린 왕자가 덧붙였지.

그건 사실이었어. 난 항상 사막을 동경했을 정도니까. 모래 언덕 위에 앉아 있음 아무 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지. 그럼에도 사방에서 고요의 원이 빛을 발한다랄까...

"사막이 아름다운 건,"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어딘가에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순간 이 신비로운 모래 사막의 광채의 비밀이 이해되어 난 깜짝 놀랐지.

난 어릴 적 오래된 집에 살았었어.

집 어딘가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던 집이었지.

물론, 누구도 그걸 발견하진 못했지, 굳이 찾아나서는 이도 없었고 말이야.

그치만 내 집 어딘가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건, 어린 내 시절 전체를 광채로 뿌려주었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밝은 미지의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주었지.

"그래,"라며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 "집이 되었건, 별이나 사막이 되었건, 진정한 아름다움은 안 보이는 법이지!"

"당신도 내 여우와 같은 말을 하신다니,"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넌 기뻐요."

이내 어린 왕자는 잠에 떨어졌어.

난 그 애를 품에 앉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

난 감동받은 상태였거든.

마치 부러지기 쉬운 보물을 옮기는 양.

지구에서 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도 없어 보이는 애였으니까.

달빛에 그 애의 창백한 이마와, 감은 두 눈, 바람에 산들거리는 머릿결이 보였어.

난 혼잣말을 했지.

"눈에 보이는 건 겉가지일 뿐이야. 정작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의 반쯤 열린 입술이 살며시 미소를 지었지.

난 혼잣말을 했지.

"자는 어린 왕자에게서 이토록 강렬히 감동받은 이유는 자기 꽃에 대한 이 애의 충실함 때문이야. 램프 등이 타오르는 것처럼 이 애에게서도 장미 한 송이가 빛을 발하고 있어, 심지어 자고 있는 이 와 중에도..."

난 이 순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꺼지기 쉬운 램프 불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

바람 한 번에도 꺼질 수 있는 연약한 이 아이를 말이야...

그렇게 무작정 걷던 난 동틀 무렵 우연히도 우물을 발견하고야 말았어.

25 장

"사람들은,"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서둘러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무얼 찾아 나서는지를 몰라요. 그저 자기 주변을 돌고 돌고 또 멎돌 뿐이죠..."

그러더니 어린 왕자가 덧붙였어.

"그건 다 쓸모 없는 일인거예요..."

우리가 닿은 그 우물은 사하라(아프리카의 사막 이름)의 어느 우물들과는 달랐어.

사라하의 우물들은 모래에 구멍 하나만 간신히 파놓은 것이었는데 반해, 지금 우리가 찾은 이 우물은 마을 우물과 닮아 있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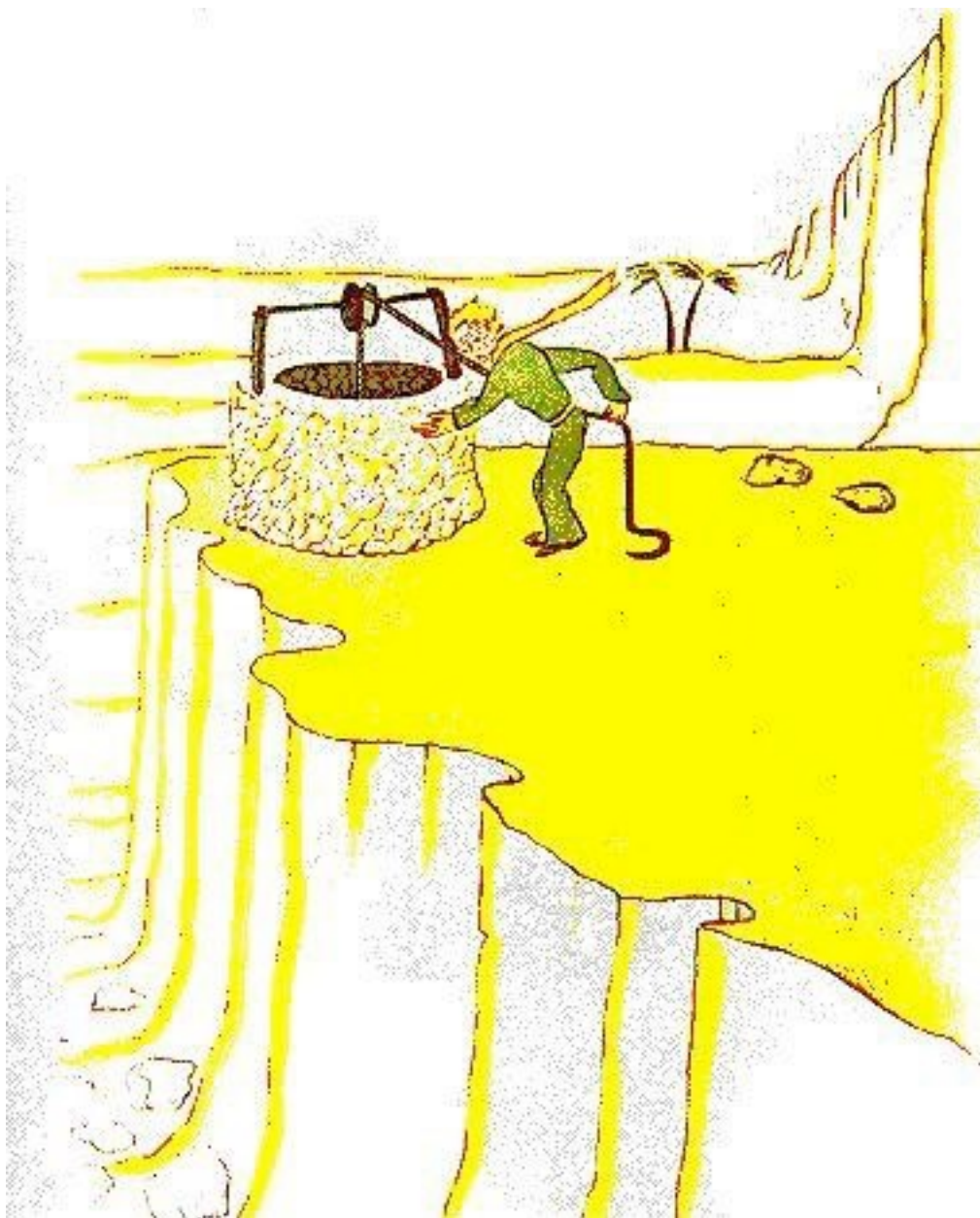
물론 근처엔 마을이 있을 리 없었기에, 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

"낮선데,"라며 내가 어린 왕자보고 말했지. "모든 게 다 있어. 도르래(바퀴에 줄을 매단 거)며, 물통이며, 밧줄까지도..."

어린 왕자는 웃더군.

그러더니 손을 뻗어 밧줄을 잡더니 도르래를 잡아 당기기 시작했어.

그 순간 마치 오랜 잠을 자던 오래된 풍차가 퐁퐁 신음소리를 내며 찬란히 되살아는 듯 그 도르래도 퐁퐁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물

"들어보세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우물이 깨어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애가 힘을 쓰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았어.

"내게 다오,"라며 내가 말했지. "그건 네겐 너무 무겁겠구나."

난 그 물통을 천천히 잡아당겨 우물 난간 위로 끌어올렸지.

그 사이 추(바퀴 같은 거. 도르래의 추를 말하는 거 같음)에선 연신 소리가 나며, 도르래의 노랫소리를 내 귓가로 들려주었다.

고요히 출렁이는 물 위로 요동치는 햇살이란...

"저 목 말라요,"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물 좀 주세요."

난 그제야 어린 왕자가 바라던 게 뭔지 헤아리게 된 거야!

난 물통을 들어 그 애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지.

그 애는 마셨어.

두 눈을 질근 감은 채.

파티처럼 달콤했어.

물은 음식보다 더 값졌어.

더구나 별들과 도르래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내 두 팔로 이룬 노동의 결과로써 얻은 물은 더욱 더 그랬어.

선물을 받았을 때의 마음이랄까.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에 모인 사람들의 음악소리들,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들에서 뿜어져나오는 광채(=빛)로 달아오른 내 미소의 달콤함.

"당신 별 사람들은,"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한 정원에서만 오천 송이가 넘는 장미를 키워요, 그러고도 정작 자신들이 찾던 걸 못 찾아요."

"찾던 걸 못 찾고 말고."라며 내가 말했지.

"그치만 그건 장미 하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던 거예요..."

"물론이지."라며 내가 말했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봐야 하는 걸요."

난 물을 마셨어. 한결 숨쉬기가 편해졌지.

동이 틀 무렵의 모래사막은 흡사 벌꿀색이었어.

이 벌꿀색은 내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색이었지.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어린 왕자가 내 옆으로 다시 앉으며 말했지.

"약속 지키셔야 해요."

"무슨 약속?"

"아시잖아요... 제 양에 입마개를 그려주는 거요... 제 꽃도 책임줘주셔야 해요!"

난 내 호주머니에서 그림 몇 장을 꺼냈지.

어린 왕자가 그걸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

"바오밥나무 그림은 너무 못 그렸어요, 마치 양배추 같아요..."

"오!"

내 그림 실력에 얼마나 자긍심을 느끼게 차에 바오밥나무라니!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귀가... 너무 길어서... 뿔 같아요!"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지.

"이거 부당한데, 애야, 난 닫힌 보아 뱀과 열린 보아 뱀 밖에 그려본 적이 없는 걸."

"오! 그래도,"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아이들은 다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입마개를 그려주었지.

그 그림을 건네주는데 마음이 '아려'(=미어저=아련해져=슬퍼) 오더라.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그치만 어린 왕자는 내 말에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

"있죠, 내일이 일년째예요... 지구에 온지..."

그러다 잠시 말을 멈추곤 이렇게 말하더군.

"이 근처 가까이에 떨어졌었는데..."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혔어.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음에도, 왠지 모르게 서글퍼졌어.

그치만 곧 다른 질문이 내게로 날아왔지.

"그렇담 1주일 전 그 날 아침에 내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그것도 혼자 있는 널 우연히 만난 게 우연만은 아니란 소리구나! 내가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어.

그래서 난 서둘러 이 말을 덧붙여야했지.

"아님 생일이었니(아님 기념하려고)?"

어린 왕자가 다시 얼굴을 붉혔어.

이후 그 애로부터 더는 질문이 없었어.

그 애가 얼굴을 붉힐 때면 그건 꼭 내게 "예"라고 말하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

"아, 이거!"라며 내가 말했지. "웬지 두려운데."

그치만 이번엔 그 애도 대답을 해주었지.

"하실 일이 있으시지 않았어요. 기계로 돌아가셔야죠. 전(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게요. 내
일 밤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주세요..."

하지만 난 확신하지 못했지. 아니 쉬이 용기가 나지 않더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군.

여우 애기가 떠올랐기 때문이야.

서로에게 길들여지게 되면 눈물 흘릴 일도 같이 생기게 되는 법이란 걸 말이야...

26 장

그 우물가 옆엔 무너진 돌담 하나가 있었어.

다음날 저녁 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멀찍이에서부터 그게 보였어, 어린 왕자가 두 다리를 흔들며 그 돌담에 앉아 있는 것이.

물론 그 애가 말하는 소리도 들렸어.

"그래서 기억 안 나니?"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지.

"딱 여긴 아니었잖니!"

아마 다른 목소리가 대답을 한 모양이었어.

왜냐면 어린 왕자가 곧 이렇게 대꾸했기 때문이지.

"그래! 그래! 그날 말이야, 하지만 여긴 아니었지..."

난 그쪽 돌담 쪽으로 계속 걸어갔어.

그치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그렇다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었어.

오직 어린 왕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들릴 뿐이었지.

"...그야 물론이지. 모래에 남긴 내 발자국을 봐봐. 넌 그냥 나만 기다리면 돼. 오늘 밤 다시 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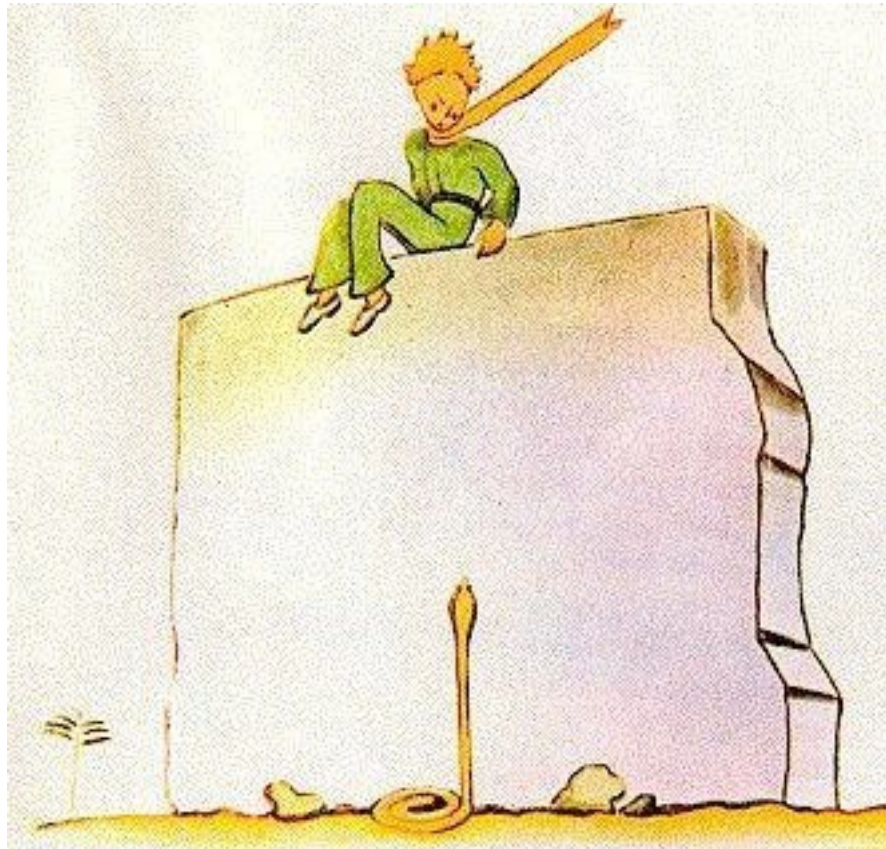
난 돌담 20미터 앞까지 왔지만 여전히 누구도 보이지 않았어.

잠시 잠자코 있던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지.

"네 독은 착한 독이니? 날 너무 오랫동안 아프게 하고 그런 건 아니지?"

난 걸음을 멈췄어, 마음이 조여왔거든, 그치만 여전히 그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오지 않고 있었지.

"이제 됐어,"라며 어린 왕자가 말했어. "이젠 내려가줘!"



노란 뱀

그제야 난 고개를 낮추어 돌담 아래를 보았지.

순간 난 뒤흔들고 말았어!

어린 왕자 앞엔, 30초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노란 뱀 하나가 딱하니 버티고 있었던 거야.

난 얼른 호주머니에서 내 연발 권총을 꺼내며 발을 내딛었지.

그치만 내 발자국 소리에 뱀이 스르륵 모래 속으로 가라앉아버렸어.

뱀 특유의 쉬쉬하는 소리를 내며 돌틈 사이로 스르륵 미끄러져 숨어버리고 만 거지.

난 돌담에 다다르자마자 얼른 어린 왕자를 두 팔로 안아 받쳐 주어야했어.

어린 왕자가 이미 눈처럼 창백해져 있었기 때문이야.

"무슨 일이니? 지금 뱀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니!"

그 애가 입고 있던 고깔 달린 금빛 겹옷을 풀어주었어(옷의 단추를 풀어주었어).

그런 다음 그 애 입에 물을 적혀주고 몇 모금 마실 수 있게도 해주었지.

감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더 무를 용기도 나지 않았어.

그 애가 엄숙하게 날 바라 보더니 내 목을 자기 팔로 감쌌지.

총에 맞아 다 죽어가는 작은 새의 맥박 소리 같은 게 내 체온으로 전해져왔어.

그 앤 내게 말했지.

"비행기를 다 고치셨다니 기뻐요. 이젠 집에 돌아갈 수 있겠네요..."

"어떻게 안 거니!"

내가 막 그 얘길 하려던 참이었는데,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난 그 일에 성공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내 말엔 도통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지.

"저도, 오늘, 집에 가요..."

그런 다음 침울한 목소리로.

"훨씬 더 멀고... 더 힘든 곳으로요..."

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지.

난 그를 어린 아기 다루듯 품에 좀 더 안아주었어.

그치만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애는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심연의 깊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거 같아.

어린 왕자는 낯이 나간 듯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

"아저씨가 그려준 양들도 있고. 이제 양우리도 있어요. 이제 양들의 입마개만 있음..."

난 침울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

한참을 기다렸더니 간신히 그 애의 몸이 조금씩 다시 따뜻해져왔어.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물론 그 앤 정말 무서워하고 있었어!

그치만 그 애는 살며시 웃어 보이고 있을 뿐이었지.

"오늘 밤엔 더 무서울 거예요..."

그 말에 난 밀도 끝도 없이 한기(추움 또는 두려움)를 느꼈어.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를 다신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그 웃음 소린 내게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았기 때문이지.

"얘야, 네 웃음소리가 듣고 싶을 게다..."

하지만 그 앤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

"오늘 밤이면 1년이 돼요. 그럼 제가 작년에 떨어진 그 장소 위로 제 별이 떠올라요..."

"얘야, 뱀, 또는 약속 장소, 또는 별에 관한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니니?"

그치만 그런 내 말엔 대꾸 않고서 그 애가 말했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물론이다..."

"저는 그 꽃이 좋았어요. 제가 어느 별에 있는 꽃을 사랑한다면, 전(저는) 밤마다 달콤해져 밤하늘을 올려다볼 거예요. 그럼 모든 별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일 거예요."

"물론이다..."

"물도 마찬가지로요. 아저씨가 제게 준 물 한 모금은 음악 같았어요. 기억나세요... 도르래와 밧줄로 끌어올린... 달콤했어요."

"물론이란다.,,"

"오늘 밤, 별들을 봐주세요. 어느 별이 제 별인지는 너무 작은 별이라 말씀드릴 순 없어요. 그래서 더 좋았어요. 제 별은 이제 아저씨에게도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될 테니까요. 그럼 아저씨는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별들이 이제 아저씨의 친구가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어.

"아! 아가야, 아가야, 난 단지 네 웃음 소릴 듣고 싶을 뿐이란다!"

"그게 제 선물이에요... 단물과도 같은..."

"무슨 말이니?"

"사람들에게 별들이 저마다 다 같은 건 아니에요. 여행을 하는 이들에게 별은 안내원이고, 몇몇 에겐 고작 살짝 밝은 불빛에 지나지 않죠. 그리고 몇몇 학자들에게 별들은 골칫거리지만, 상인에겐 금이 죠. 하지만 별들은 모두 말이 없어요. 아저씨 이제 그 누구와도 다른 별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니?"

"아저씨가 밤 하늘을 바라볼 때면, 저 별들 중 하나에 제가 살고 있을 걸 알기에, 웃음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저씨 모든 별들을 보면서 미소 짓게 될 거예요. 웃음을 줄 수 있는 별을 품 게 된 거죠!"

어린 왕자가 또 웃었어.

"우린 항상 위로가 필요해요, 아저씨 이제 위안이 되실 때면 저를 알게 된 게 기뻐질 거예요. 아 저씨 항상 제 친구일 거니까요. 저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고. 때때로 창문을 여시면서도 기쁠 거예요... 그럼 하늘을 보며 웃고 있는 아저씨를 보며 친구들이 놀라겠죠. 그럼 이렇게 친구분들께 말해주시면 되세요. '그래, 별이, 저 별이 날 웃킨다네!'라고. 그럼 그들이 아저씨 제정신이 아니라 여기겠죠. 제가 너무 짓 궂은 장난을 치는 건가요..."

어린 왕자가 또 웃었지.

"이런 별들 대신 웃을 수 있는 초인종들을 잔뜩 드리고 말았네요..."

어린 왕자가 또 웃었어.

그러더니 다시 못내 심각해져선 말했지.

"있죠... 오늘 밤엔... 오시지 마세요."

"널 내버려 두진 않을 거란다."

"전 아파 보일 거예요. 거의 죽은 듯 보일 거예요. 그러니 오시지 마세요, 오실 필요 없으세요..."

"널 내버려 두진 않으마."

하지만 어린 왕자는 갈망했어(걱정했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네, 물론 그 뱀 때문이에요.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돼요... 뱀들은 나빠요. 그냥 재미 삼아 물 수도 있어요..."

"널 떠나지 않으마."

하지만 뭔가 확신이 든 모양이었어.

"두 번째 물리면 더 이상 독기운은 없어요."

그날 밤 난 어린 왕자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 애는 너무도 황급히 떠나버렸다. 가까스로 내가 그 애와 다시 조우했을(만났을) 때, 그 애 단호히 걷고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그 애가 내게 말했지.

"아! 여길 오시다니..."

그 애가 내 손을 잡으며 무척이나 힘들어했어.

"나빠요. 힘드실 텐데. 제가 죽은 듯이 보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말이 없었지.

"아시겠지만, 그곳은 너무도 멀어요. 이 몸으로 갈 수 없어요. 몸은 너무 무겁거든요."

난 말이 없었지.

"이제 제가 버려진 낡은 나무껍질로 보이시겠지요. 낡은 나무껍질이라고 슬픈 건 아니에요..."

난 아무 말이 없었어.

그 애 살짝 낙담한 듯 보였어.

하지만 곧 기운을 냈지.

"좋아요, 알잖아요. 저도 별들을 볼 거예요. 그럼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들로 보일 거예요. 그럼 그 별들을 뭉땅 다 들이킬 수 있으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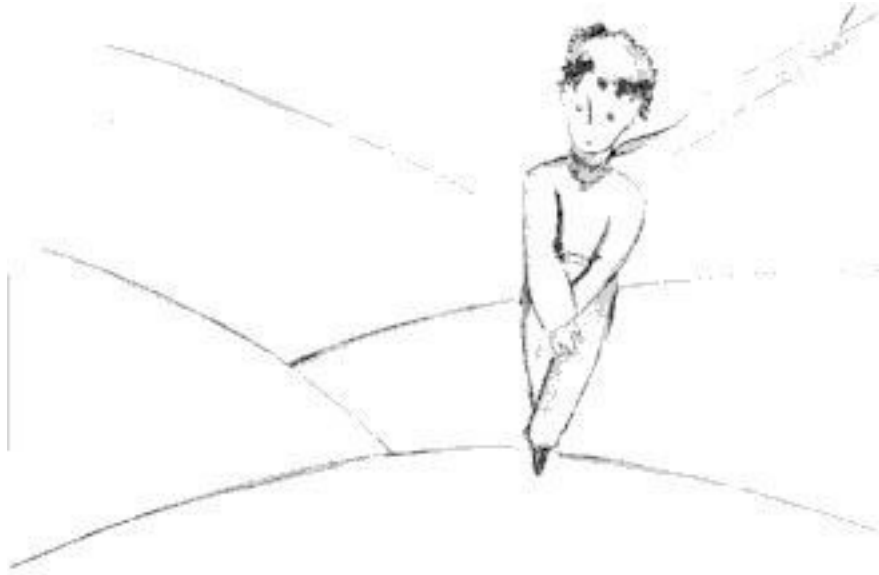
난 말이 없었어.

"그럼 너무 재미날 거 같아요! 아저씨 5억 개의 초인종들을 가지게 되고, 전(저는) 5억 개의 우물들을 가지게 되고..."

그 애 역시나 말이 없었다.

곧 (어린 왕자가) 울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혼자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혼자 가볼게요.

두려웠기에 어린 왕자는 주저앉고 말았다.



어린 왕자는 주저앉고 말았다. 그 애가 말했다.

"있죠... 제 꽃에... 전(저는) 책임이 있어요! 그 앤 너무 약해요! 너무 어려서. 세상으로부터 자길 보호할 거라 곤 고작 가시 네(4) 개가 다인 애예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던 난 주저앉고 말았다.

그 애가 말했다.

"다 끝났어요 다요..."

그 애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더니 다시 일어서더니. 한 걸음씩 내디뎠다.

그치만 난 한 발자국도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애의 발목 언저리(가까이)의 노란 섬광(빛 줄기)만이 보였다. 잠시 동안 그 애가 미동(움직임)도 없이 꿈쩍하지 않았다. 고함도 치지 않았다. 그 앤 그렇게 낙엽처럼 조용히 쓰러지고야 말았다.

사방의 수북한 모래들 때문에, 심지어 아무런 소리도 나는 쓰러짐이었다.

27 장

물론 지금은 6년이 지난 얘기다...

난 아직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살아온 걸 본 친구들은 기뻐했다.

그치만 난 슬펐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좀 피곤해..."

지금에서야 그나마 좀 안정이 된 상태다.

이 말은... 아직 완전히는 아니란 소리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잘 돌아갔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왜냐면 동틀 무렵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어린 왕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 무거운 몸은 아니었으니...

어쨌든 그때부터는 나도 밤 하늘 별들의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게 좋아졌다.

자그마치 5억 개나 되는 종들 소리에 말이다...

지금 든 괴상한 생각 하나가 있다.

어린 왕자에게 양을 위한 입마개를 그려주며 그만 깜빡 잊고 가죽끈을 달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담 어린 왕자는 어떻게 양들 입에 입마개를 달아준단 말인가.

그래서 난 혼잣말로 내 자신에게 묻는다.

"그 애 별에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아마도 양들이 그 꽃을 먹었을까..."

때때로 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대뇌이곤 한다.

"그렇진 않을 거야! 어린 왕잔(왕자는) 분명 자신의 꽃을 매일 밤 유리덮개로 질 덮어줄 테니까,
그리고 양들도 잘 보살펴줄 거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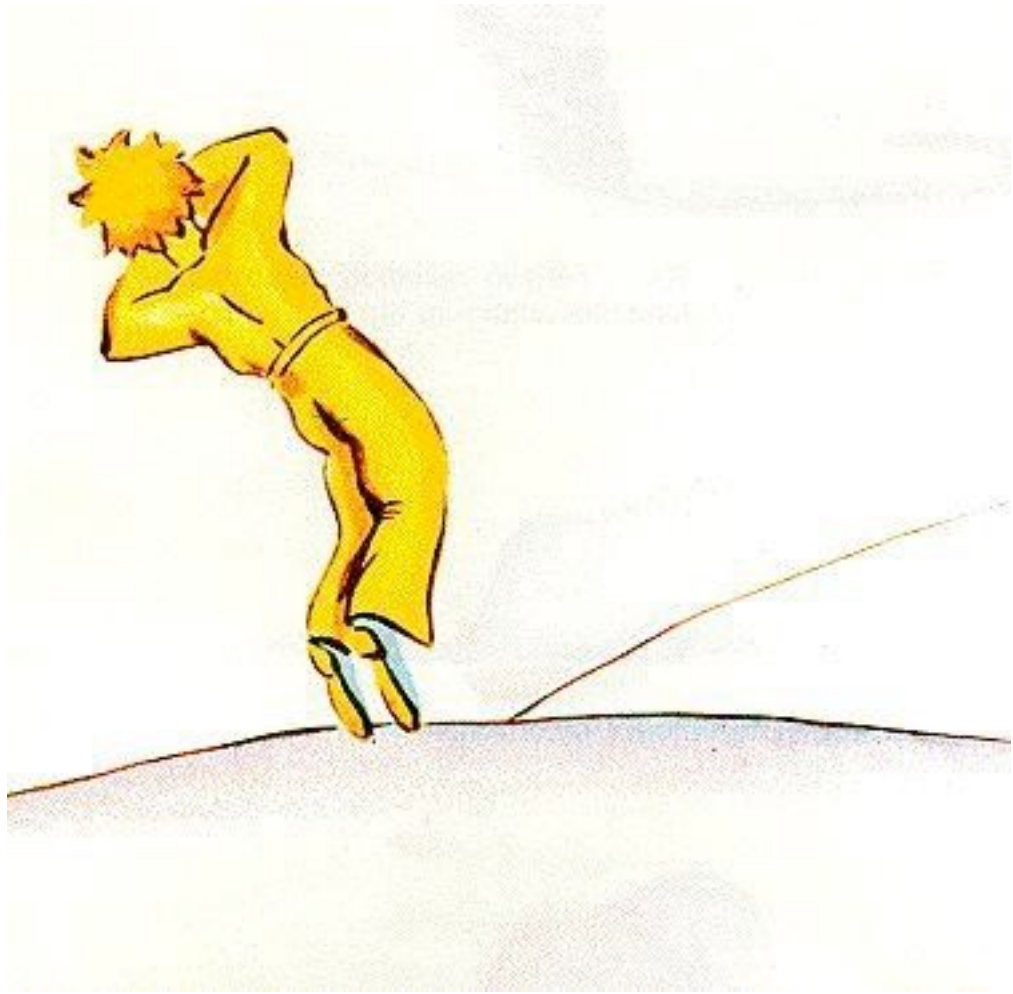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면 난 지금 내가 무척 행복하단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아진다.

모든 별들이 내게 살며시 미소 짓는 기분이다.

때때로 난 이렇게 내 자신에게 되뇌이고도 한다.

"한두 번만 방심해도 끝장인데! 어느 날 저녁 어린 왕자가 유리 덮개를 씌우는 걸 깜빡만 해도,
양들이 밤사이 재빨리 나와 그 꽃을..."

그럼 종(=별)들이 눈물로 변했다(슬픈 생각을 하면 별들이 눈물로 보였다)...!



어린 왕자가 떠난 곳 (사하라 사막의 특정 위치)

이건 큰 수수께끼였다.

왜냐면 나와 같이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겐, 우주에 어딘지도 모르는 별의 양이 장미 한 송이를 먹어치울지 아님 아직 먹지 않았을지에 따라서도 세상이 무척이나 달라진다니 말이다...

하늘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양아 너 꽃 먹었니 안 먹었니?"

그럼 그 답에 따라 모든 별들이 변하는 게 보일 것이다...

이 중요한 걸 어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해하지 못한다니!

이 그림(아래의 사막 그림)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풍경이다.

앞 페이지에서 한 장 그렸던 거와 동일한 장소를, 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한 장 더 그린 그림이 아래 그림이다.

바로 여기가, 어린 왕자가 지구에 도착했다 사라진 곳이다.



다시 돌아와 줘, 어린 왕자! (어린 왕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 사하라 사막의 특정 후보지)

이 장소를 눈여겨보아두었다가,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저녁 아프리카 사막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분명 이 장소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우연히 이곳을 지나치게 된다면, 내 부디 간청하건대, 너무 서둘지는 말고, 잠시 별빛 아래 바로 이 장소서 잠시만 기다려보시라!

그럼 짜잔 하고서 한 어린 아이가 여러분들께 다가와 방긋 웃어줄 것이다!

만약 황금 머릿결을 한 그 아이가, 여러분들이 던진 그 어떤 질문에도 쉬이 답해주지 않는다면, 그 애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부디 친절을 베푸시어!

내 슬픔이 조금이라도 가시게.

“어린 왕자가 다시 돌아왔노!”라고 내게 전보(빠른 편지) 한 통만 부쳐 달라...

끝

작가 소개 (짧게)

지은이 및 그림이 : 생텍쥐페리 (1900~1944년)

프랑스 소설가이자 비행가

옮긴이 : 마음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의 인사글 (웁긴이)



Skin Mamm
마음 섬
이 그림과 책은 일본 미술사가 그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스~
제 작품들이 하나 하나에 주제를~

읽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by 마음

추천글 (옮긴이)

어린 왕자

“순순한 영혼의 어린 왕자를 만나보세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

지금 만나실 수 있어세용~

많이 읽어주세요용 ^0^;;

※ 이 책은 애플북스(AppleBooks 또는 아이북스iBooks)에도 올라가 있어요. 자신의 국가 (2020년 6월 26일 현재 대한민국은 애플북스가 없음. 한국 지역에서는 애플북스에 접속이 불가능함)에 애플북스가 출시되어 있으신 분들(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 등등의 전세계 51개 국가. 다만 한국과 중국은 제외)은 “어린 왕자”로 검색하시면 무료로(공짜로) 이 책을 아이폰이나 맥OS 또는 아이패드 등등에서 자유롭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책은 아마존 킨들 북스(Amazon 또는 아마존 북스 또는 킨들 또는 아마존킨들)에도 올라가 있어요. 미국 또는 독일 또는 일본 등등의 해외 “아마존”(미국의 유명한 쇼핑몰 사이트) 사이트에 접속해 “어린 왕자” 또는 “마음 심”을 검색하시면 제 책들이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아마존 킨들 북스에 올라가 있는 책들은 유료(돈. 1.99달러)입니다. 아마존은 무료 도서를 업로드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애플북스를 이용할 수 없으신 분들은 유료지만 아마존 사이트에서 제 책들을 검색해볼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제 “마음 네이버블로그”나 “마음 구글드라이브”를 방문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제 책(문서파일 또는 전자책 파일)들을 편안하게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폰이나 PC 태블릿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블로그나 구글드라이브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 바로 읽으실 수도 있으세요. 다만 네이버블로그에는 광고 있습니다. 광고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 구글드라이브로 인터넷연결하셔서 읽으시면 광고 없이 편하게 제가 작성한 문서 형태(한글 파일, 워드 파일, pdf 문서파일, txt 텍스트, rtf 워드패드 문서 파일, ePub 전자책 파일 등등)로 모두 볼 수 있답니당. 다만 이 경우(마음 구글 드라이브)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습니다. 접속자가 많음 속도가 더 느릴 수도 있으세요~ 이 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 해요. 마음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해서 제 책들을 읽으시려는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 접속 후 첫번째 날부터 보통 보름(15일) 동안은 속도가 대단히 느립니다(구글 드라이브의 특성임). 다만 보통 보름 정도 지나면 보통의 네이버블로그 방문했을 때 볼 수 있는 속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마음 구글 드라이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역에 앞서 (옮긴이)

※ 지금부터는 『어린 왕자』(생텍쥐페리의 동화)를 해석해보겠습니다.

이 동화는 아래 링크의 동화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번역과정에서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1차로 영어원문으로 만든 다음, 그걸 우리말로 읽을 수 있게 좀 수정하고 다듬은 후, 2차로 우리말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어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히 번역했기에 큰 줄거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해석은 아니라는 점 감안해주시고 읽어주세요~♥ 어린 왕자가 좋아서 해석해본 거예요, 제가 읽으려고요. 그러니 많이 읽어주세요~

다만 열심히 해석은 했는데 π_π 프랑스 원문에 미치지 못하는 건 둘째 치고 혹여라도 내용을 엉뚱하게 잘못 번역한 게 있을까봐,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미리 사과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번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글(이 전자책)을 읽지 마시고 서점의 책을 읽어주세요~

제 글(전자책)은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 삼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건 좀 죄송...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옮겼으니 마니 읽어주세요~

예전에 번역해서 제 블로그(마음 네이버블로그)에 하나 둘씩 올렸던 동화나 소설들, 문서정리 또 하게 되면 그것도 EPUB 전자책으로 편집해서 빠른 시간 안에 또 애플북스(아이북스 스토어)에 올릴게요~(EPUB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애플북스와 아마존킨들북스 그리고 마음 네이버블로그 그리고 마음 구글드라이브에 각각 올렸습니다. 날짜 2020-6-26. 한국날짜 기준)

『어린 왕자』(호주의 애들레이드대학교의 인터넷도서관 사이트)(프랑스 원문) ►

https://ebooks.adelaide.edu.au/s/saint-exupery/antoine_de/le-petit-prince/

(검색 일자 : 2017-12-9)

(참고사항 : 위 사이트는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위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폐쇄한 이유가 적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퍼블릭 도메인 자료(무료 소설)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매우 많기에 자신들의 사이트는 삭제하게 되었다는 영어문구가 나옵니다. 참고바랍니다.)

『어린 왕자』라는, 이 전자책(EPUB 파일)에 들어 있는 모든 그림도 위 링크에 있는 그림 이미지들을 가져와 담은 것입니다. 제(마음 블로그)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아마 그림들은 생텍쥐페리가 직접 그린 그림들 같습니당~

잘 그리셨네요~;)

역시 남 다르신 분이셔~

이상으로 이번 번역(어린 왕 우리말 옮김) 작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좋은 영어 무료소설이나 영어동화 번역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20. 6. 26. 금요일 오전 5시 55분 31초 (한국 시간 기준)(참고로 한국 시간은 미국보다 하루 늦음)

‘심쿵 마음이’가 드림(글을 올림)